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오 성 준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연구

지도교수 정 병 설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3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전공
오 성 준

오성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원장 조희설



부위원장 정향원



위원 정병설



국문초록

이 논문은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밝히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폭력의 서사가 산출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문학 연구에 적합한 폭력의 개념을 마련하기 위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폭력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폭력이란 타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위해 및 훼손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그 존엄성, 신체 및 정신적 자유, 정체성,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언어적 · 비언어적 · 정신적 · 관계적 폭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폭력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개인 對 개인, 집단 對 개인, 집단 對 집단으로 폭력의 유형을 나누어 그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고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을 ‘옹녀 추방’, ‘강쇠 살해’, 그리고 ‘시체 처리’로 나누어, 그 주체와 대상, 원인, 수단, 그리고 사후에 폭력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모습까지를 총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옹녀 추방’에서는 남달리 아름답고 반복적으로 개가를 선택하는 옹녀가 마을 남성 노동력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받고 추방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단 심리가 형성되는 과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개인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여 행사되는 집단적 폭력의 작동방식을 확인했다.

‘강쇠 살해’에서는 마을 집단의 경계 밖으로 축출된 상태에서 장승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일탈을 저지른 강쇠에게 가해진 폭력을 살폈다. 그 폭력은 옹녀의 추방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라는 형태를 보이지만 폭력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며, 살해라는 더욱 잔혹한 방

식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강쇠의 징치 방법을 결정할 때 장승들이 경쟁하듯 발언하는 대목은 집단이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윤리적·도덕적 분별력과 죄책감이 마모되어 잔혹해지는 집단 심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폈다.

‘시체 처리’에서는 강쇠의 시체를 비롯한 여러 구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별력과 죄책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행사된 집단적 폭력은 그 피해자를 괴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폭력의 결과로 시체가 된 강쇠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을 집단에 대한 원망이나 적대감을 엉뚱하게도 옹녀와 다른 유랑인에게로 치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신을 죽게 만든 장승집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복수하는 모습을 통해, 폭력이 보통 약자에게 가해진다는 원리와 폭력의 대상이 된 약자는 다시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아래의 약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른바 가학(加虐)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강쇠의 시체가 처리되는 모습에서 추방과 살해에 이어 그 존재 자체를 말살해버림으로써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철되고 있는 집단적 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는 폭력론적 관점에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특히 <변강쇠가>가 폭력의 위협적인 특성과 분출구로서의 집단적 폭력이 전면에서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했다. 판소리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진술한 현실 인식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조명되어 온 민중의 긍정적 면모뿐만 아니라 폭력이라는 현실의 불편한 진실까지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의 첫 번째 의미를 찾았다. 다음으로 <변강쇠가>의 중요한 폭력들이 대체적으로 ‘집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집단 심리’와 ‘폭력’의 상관관계 속에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폭력 주체로서 집단의 형성, 집단 이기주의와 결합된 군중심리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집단적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변강쇠가>에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폭력의 집단성이 반복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그려진 작품으로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논하고자 했다.

또한 <변강쇠가>가 서술의 차원에서 시종일관 폭력의 피해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이 당하는 폭력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은 물론, 옹녀와 강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와 잔혹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되는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연민의 시선을 보이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논리가 <변강쇠가>에서는 거부되고 있으며, 문학이 현실의 폭력을 담아내는 것을 넘어 문학 자체가 폭력성을 띠고 2차, 3차 가해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의 폭력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요컨대 ‘폭력’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제이며, <변강쇠가>에서는 집단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되고 있는 폭력의 존재와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집단적 폭력, 특히 대하층 공동체 폭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강쇠가>는 의미를 지닌다.

* 주요어 : <변강쇠가>, 폭력, 집단적 폭력, 타자화, 군중심리,
폭력의 집단성, 대하층 폭력, 사회적 약자, 2차 폭력

* 학 번 : 2012-22861

목 차

*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6
II. 폭력의 개념과 유형	17
1. 폭력의 개념	17
2. 폭력의 유형	29
III.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35
1. <변강쇠가>의 폭력 장면	35
2. 옹녀 추방과 폭력	41
3. 강쇠 살해와 폭력	50
4. 시체 처리와 폭력	58
IV. 폭력론과 <변강쇠가>의 의미	73
1. 현실 폭력의 포착	74
2. 폭력의 집단성과 군중심리	82
3. 감정이입의 배제와 2차 폭력	97
V. 결론	102
* 참고문헌	106
* 중문초록[中文摘要]	113

I.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폭력의 서사가 산출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해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본래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함께 어울려 행동하면서 자신과는 물론 타인과의 교섭하는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행위를 관찰해 보면, 결국 인간의 사회적 교섭은 ‘관계와 소통’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 이처럼 각각의 삶의 얽힘을 통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들이 속한 집단은 비로소 사회라는 존재의 특성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인간의 삶의 짜임과 얽힘으로 집단사회가 만들어지고 운용되어졌더라도, 그 구조의 근간인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섭과 소통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과 갈등은 집단사회 구조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그러한 불균형과 갈등의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지점에 ‘폭력’이 자리하고 있다.

작게는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부터 크게는 국가에 의한 폭력까지,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양각색의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폭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폭력과 무관한 개인의 삶은 있을 수 없고,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시기는 창세부터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인류는 때로는 폭력의 주체 혹은 대상이 되거나, 때로는 폭력의 방관자가 되어 살아간다. 인류 역사의 모든 장에서 폭력이 배제된 현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은 인간의 본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내는 우리네 삶 또한 편재하는 폭력의 자장 안에 놓여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신조어가 지시하듯이 폭력은 일탈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생활의 공간이나 삶의 터전에도 이미 만연하다. 또 신체폭력, 언어폭력, 상징폭력, 성폭력 등 이와 같은 폭력의 다양한 종류와 용어에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사실은 폭력이 몸에서부터 말, 기호, 성(性)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주변에 산재해 있음을 방증한다. 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삶을 촘촘하게 가로지르며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과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은 궤를 함께 한다. 폭력은 더 이상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한 것으로 무심코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상이 되었다는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행사된 힘’과 같은 류의 폭력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그것을 단순한 불법성이나 육체성과 결부하는데 그치는 반면, 현재 폭력의 개념은 이러한 물질적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권리의 위반이나 부정의(不正義), 이를 유발하는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구조의 차원까지 포함한다. 폭력의 외연이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구조적, 제도적, 문화적, 집단적 폭력을 포함하는 총체로 확장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은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 모방적 표현으로서의 문학의 기능과 가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없는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인간들의 모습과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현실적 시대상과 인간상을 잘 보여주며, 그 중에서도 소설은 인간묘사에 있어서 매우 자세하다. 또한 소설은 그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로는 사상이나 역사적 기록 보다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기도 한다. 사상이나 역사적 기록이 인간을 ‘설명’한다면, 소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묘사’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모방하여 구성되고 이야기되는 방식으로서의 문학, 즉 문학과 현실이 맺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때, 문학과 폭력 역시 중요한 접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학은 모사나 재구성, 혹은 해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소재로 삼거나 주제로 다루어왔다.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 혹은 물리적 차원이나 심리적 차원에서 현실에 만연한 폭력을 다양한 형식을 통해 다루고, 또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문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찰해 온 것이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다양한 문학에서 놀라우리만치 방대하고 다양한 폭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서구문화의 기점인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신(神)과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러 신(神)들의 이야기가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혈육 살해, 전쟁과 자살, 잔혹한 형벌 등 온갖 종류의 폭력의 유형을 접하게 된다.¹⁾ 성경(Bible)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 이상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을 발견할 수 있다. 신에 의한 형벌, 정복 전쟁, 십자가 형벌 등 기독교의 신약이나 구약 모두 폭력을 이야기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²⁾ 이처럼 문학은 다른 어떤 담론보다 더 끈덕지게 폭력에 대응해 왔으며, 그 중에서 소위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으로서의 폭력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탐구해왔다.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은 태초부터 먹이사슬 관계에 놓여있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 아닌 다른 것의 희생이 불가피했던 자연의 섭리에서부터 폭력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모양과 성격을 달리하

1) 박은경, 「불협화음의 엑스터시-문학과 폭력에 관한 소고」, 『뷔히너와 현대문학』 34권 (2010) 246~248면.

2) J. Punt,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Roman Empire: Ambivalence, Othering, Agency", in G.R. Peter & Jan Willhelm van Henten ed., *Coping with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12), pp 23~29.

며 폭력은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개인을 넘어 가정, 마을, 중소 행정구역, 국가까지 집단이 이루어지는 곳은 늘 폭력의 그늘 아래 있어왔으며 이러한 역사가 수 천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현재까지, 인류는 무의식적이고 잠재적으로 폭력에 관한 DNA를 대물림하여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발생했던 폭력이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 특히 한 사회나 집단 안에서 집단의 규율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소수 혹은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배척과 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무디게 반응해왔다. 지금까지 폭력에 대해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들보다, 폭력에 대해 필요 이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로인해 폭력에 대한 담론의 형성은 근대 이후가 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본격적인 연구 역시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은 인간의 폭력성을 계속해서 포착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 문학사에서조차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문학사에서 인간의 폭력성이 톱진하게 드러난 작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그러한 작품이 있다면 그 속에서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대체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러한 작품이 산출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논문은 동리(桐里) 신재효(申在孝, 1812~1884)에 의해 정리된 판소리 사설 6마당 가운데서 창은 잃어버리고 사설만 남아있는 <변강쇠가>에 주목한다.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당대 현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강쇠가>는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하층민의 생활상을 기반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재효에 의해 정리된 다른 어떤 사설들보다도 하층의 현실에 맞닿아 있는 이야기가 <변강쇠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강쇠가>의 주인공들은 작품 전반에 걸쳐 ‘폭력’으로 정의되는 힘, 특히 집단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

는 모습을 보여준다. <변강쇠가>에서의 폭력은 단지 인물의 고난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혹은 인물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간의 폭력부터 집단적인 폭력까지, 폭력이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며, <변강쇠가>에서 폭력은 서사를 추동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변강쇠가>의 주된 갈등을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파악하며, 그 갈등에 드러난 폭력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도 <변강쇠가>의 주인공들인 강쇠와 옹녀가 마을 집단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해결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집단적 폭력이 선택되고 있는 이유나 그러한 폭력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폭력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제이다.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최근 폭력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으나, 공동체에 의해 행사되는 집단적 폭력이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 방식을 살피고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가 갖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집단적 폭력 특히 대하층(對下層) 공동체 폭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변강쇠가>라는 고전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폭력의 접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폭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사 검토

여기서는 본고의 주 대상인 <변강쇠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밝힘으로써 논의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폭력론과 관련된 연구사를 간략히 검토함으로써 <변강쇠가>의 폭력성을 논하는 데 필요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흔히 <변강쇠가>의 연구사를 논할 때, 그 시작을 근원설화와 같은 소재의 탐색 및 초보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변강쇠가>를 비롯한 신재효본 판소리 사설을 수집하고 필사했을 뿐만 아니라, 강의를 통해 판소리 연구의 가치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던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68)로부터 <변강쇠가>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조선어학회의 주요 회원이었던 가람은 1932년 전남지역 강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전라북도 고창에 들르게 되었다. 이 때 신재효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쓴 사설 자료가 고수면 평지리에 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된 이후로, 가람은 신재효 사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찍부터 기록문헌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평생을 자료 수집에 바쳤던 가람은 국문학적 자료로서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귀중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군수까지 동원하여 간신히 자료를 빌려다 필사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수집과 필사에 기울인 노력은 『가람일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³⁾

3) 가람이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수집과 필사에 기울인 노력은 『가람일기』 1932년부터 1955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변강쇠가>와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5 참조.

1932/8/17(수) 조형(趙兄)은 출근하고 운(雲)군과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정원의 화초를 바라보고 앉았을 뿐, 조생원(趙生員) 어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여 좀 파적(破敵)이 되었다. 비는 멎는다. 운군과 같이 동아일보사 지국장 오동균(吳東均)군을 가 보다. 오군은 펍 친절하다. 신오위장(申五衛將)의 가사를 알아보았더니 고수면(古水面) 평지리(平支里) 구장(區長) 박헌옥(朴憲玉)의 집

가람은 고창 지역에 전해지는 사설 전승본들과 다른 곳에 소장된 사설 전승본을 빌려서 직접 필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사하게 하여 『신오위장본집』을 엮었다. 그리고 제자 김삼불과 함께 신재효전집의 출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루지기타령>을 교주하여 『신오위장전집(1)』로 출판하기도 했다.⁴⁾ 그런가 하면 해방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로 부임하여 이듬해 강의 과목으로 <조선의 극가>를 개설한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 자료 수집과 강의로 이어진 가람의 판소리 연구는 당시 강의를 들던 강한영, 김삼불, 이명선, 정병욱 등의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신재효의 사설뿐만 아니라 판소리 가사에 대한 텍스트의 발간과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를 바탕으로 파생되었다.

가람은 판소리를 ‘극가(劇歌)’라는 장르로 규정하고, 동리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 정리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 에 그 전부가 있다 하며, 그걸 잘 안다는 그 종형(從兄) 의균(懿均)군은 진실한 이다. 40까지 학자 노릇을 했다. 한때 신오위장 가사를 연구하다 말았다 한다.
- 1932/10/5(수) 고창(古敞)에 신오위장 저 <춘향가(春香歌)> 남창(男唱), 동창(童唱) 2책이 오다. 약봉지 같은 종이에 베꼈다. 글씨가 펍 용렬하다. 여창(女唱) <춘향가(春香歌)>, 심청가(沈淸歌),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赤壁歌), 변강쇠타령 따위는 오지도 않았다. 이 두 책을 베끼고 보내면 또 계속해 보낸다는 것이다.
- 1932/12/26(월) 고창(古敞) 조형(趙兄)에게서 신오위장(申五衛將) 노래책(심청전, 橫負歌, 烏蟾歌, 成造歌, 적벽가)이 왔다.
- 1933/1/21(토) 신오위장 가사(申五衛將歌詞) 베끼는 데 3원, <속악가사> 베끼는 데 3원을 주다.
- 1948/8/12(목) 종일 집에서 <가루지기타령>을 교주(校註).
- 1948/8/14(토) <가루지기타령>을 다 교주하여 국제문화관(國際文化館) 출판부에 주었다.
- 1949/2/11(금) 조남령(曹南嶺)군이 왔다. 같이 <가루지기타령> 삼교(三校)를 보았다. 국제문화관(國際文化館) <조선민족총서(朝鮮民族叢書)> 제 3집으로 출판.
- 1951/9/15(토) 추석(秋夕). <신오위장가집(申五衛將歌集)>을 베꼈다.
- 1955/8/13(토) 우리는 군수실에 앉았다. 신길동(申吉童)군과 오의균(吳毅均) 노인이 찾아왔다. 점심을 먹인다. 그리고는 신길동(申吉童)군의 집으로 갔다. 오섬가라, 허두가(虛頭歌), 어부사조(漁父詞造), 성조가합부(成造歌合附), 적벽가(赤壁歌), 횡부가(橫負歌), 심청가(沈淸歌), 박흥보가(朴興甫歌), 토별가(兔鰐歌), 계유(癸酉) 칠월 일, 을유만장(乙酉輓章) 등을 빌려 왔다.
- 1955/9/11(일) 고창(古敞) 신오위장(申五衛將) 개작본(改作本)인 횡부가(橫負歌)를 그 집 소장본(所藏本)과 교준(校準).
- 4) 『신오위장전집(1)』은 국제문화관에서 ‘民族文學叢書(3)’으로 1949년 5월 10일에 출판되었다.

신 오위장(申五衛將)은 춘향가(春香歌) 외에도 그 날카로운 붓끝으로 영절스럽게 알뜰하게 첨삭(添削)을 하여 순(純) 조선적(朝鮮的)인 정서(情緒), 정취(情趣), 기분(氣分)을 장히 드러내어 우리 민족성(民族性)을 발휘(發揮) 하였는바, 그 중 횡부가(橫負歌)와 같이 우리 고전 문학(古典文學)에 특이(特異)한 색채(色彩)를 가진 것으로 이 본집(本集)이 아니고는 얻어 볼 수 없다. 우리 고전(古典)에는 의고(擬古), 의타(擬他)가 아니면 텅빈 부허(浮虛), 맹랑(孟浪)한 수작이 많았으나, 신 오위장(申五衛將)은 반드시 실정(實情), 실감(實感)에 맞게 다듬은 화려(華麗), 섬세(纖細)한 필법(筆法)으로 스스로 독특(獨特)한 창의(創意)를 가지고 우리의 민족 문학(民族文學)을 뚜렷이 창시(創始)한 거인(巨人)이었다. 그는 광대 예술(藝術)의 천재적(天才的)인 지휘자(指揮者)라기보다도 나는 그를 우리 극가 문학(劇歌文學)을 완성(完成)한 큰 은인(恩人)으로 숭배(崇拜)하고 있는 바이다.⁵⁾

위에서 가람은 신재효에 의해 정리된 판소리 사설에 대해 조선적인 정서, 정취, 그리고 기분을 잘 드러내었으며, 실정과 실감에 맞게 다듬어 완성된 극가문학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유독 <변강쇠가>를 우리 고전 문학에서 특이한 색채를 가진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람이 <변강쇠가>에 대해 가졌던 특별한 관심은 신재효전집의 출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루지기타령>을 교주하여 『신오위장전집』의 첫째 권으로 출판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로 <변강쇠가> 연구는 가람 이병기가 주목했던 <변강쇠가>의 특이한 색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의 답을 내놓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초기의 연구는 <변강쇠가>의 근원설화를 제시하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음란성에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이명선은 숙종 이후에 중인 계급이 경제적

5) 이병기, 『國文學概論』, 일지사, 1961, 172면.

토대를 구축하고 자유로운 풍류를 추구하는 배경에서 음담패설 등의 설화를 바탕으로 이 작품이 생성될 수 있었다고 하였고,⁶⁾ 김동옥은 판소리의 발생에 대해 논의하며 <변강쇠가>의 중심소재를 음남음녀설화와 부작설화로 파악하였다.⁷⁾ 이밖에 작품에 관한 자료 정리나 주해를 통해 <변강쇠가>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⁸⁾

초기 연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연구로의 도약은 서종문의 연구⁹⁾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서종문은 <변강쇠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는 유랑민의 생활상을, 후반부는 유랑민의 유랑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강쇠가 장승을 장작으로 패 장승동티로 죽게 된 사건에 대해, 유랑생활을 청산하고자 하는 하층 유랑민들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패배하게 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변강쇠가>의 구조와 관련하여 미학적인 측면에서 비극적인 구조라고 말하고, 이러한 비극적 구조를 기물타령이나 치상꾼들의 모습 등의 희극적 요소들이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종문은 <변강쇠가>를 당대의 구체적 역사 조건과 맥락 속에서 해석하여, 주인공들이 현실에 패배한 모습에서 유랑민들의 참상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서종문의 연구를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변강쇠가>의 주제와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있었다. 박진태는 <변강쇠가>를 강쇠라는 인물을 풍자하는 구조를 가지는 성애(性愛) 문학으로 파악하고, 강쇠와 용녀를 민중의 상징으로, 장승을 이와 대립되는 관권(官權)의 상징으로 해석하였다.¹⁰⁾ 박경신은 서종문과 마찬가지로 <변강쇠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다만 후반부를 전반부에 덧붙여진 부분으로 보고, <변강쇠가>를 풀이와 놀이라는 무속 제의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전반부의 주요 인물은 강쇠와 장승이

6) 이명선, 「조선연문학의 최고봉 <변강쇠전>」, 『신천지』 제 4권 제 6호, 서울신문사, 1949.

7) 김동옥, 「판소리 발생고 (2)」, 『논문집』 3, 서울대학교, 1956.

8) 강한영(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전)』, 민중서관, 1971.

9) 서종문, 「<변강쇠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10) 박진태, 「<변강쇠가>의 희극적 구조」, 『논문집』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며, 강쇠와 장승 간에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강쇠가 장승 동티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보았다. 따라서 <변강쇠가>는 강쇠와 같은 부정적 개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절대성을 확인하는 작품이라고 보았다.¹¹⁾

한편 정병헌은 강쇠의 죽음을 지배체제의 이념 속에서 민중이 함몰되어 가는 모습으로 보고, 옹녀와 강쇠라는 개인이 장승으로 표상되는 체제, 이념과 대립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강쇠는 죽음 이후 자신과 대립되는 체제와 이념을 다시 변형하여 옹녀와 대립한다고 보았다.¹²⁾ 김종철 역시 강쇠라는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을 <변강쇠가> 갈등구조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강쇠와 유랑연예인들의 갈등과, 본질적인 갈등인 강쇠와 마을 공동체와의 갈등으로 이분법화 된다고 하였다. 강쇠와 옹녀를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된 인물로 보고, 강쇠를 빈농층이나 도시에서 형성된 부정적 건달형 인물로 규정하는 동시에 옹녀를 비극적 하층민으로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비극적 삶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폭넓게 진행된 마을 공동체의 계층 분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전신재는 <변강쇠가>는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강쇠와 질서를 유지시키려는 지배층간의 대결에서 강쇠의 파멸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보았다.¹⁴⁾

이상의 198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논의를 정리해보면,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논의가 <변강쇠가>의 갈등을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 역시 <변강쇠가>의 주된 갈등을 ‘개인과 사회’ 혹은 ‘개인과 집단’의 갈등으로 파악하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갈등 해결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폭력’이 선택되고 있는 점과, 그러한 폭력이 소수를 향한 다수의 집단적 폭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1) 박경신, 「무속제의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12) 정병헌,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24, 1986.

13) 김종철, 「19세기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14) 전신재, 「판소리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변강쇠가>의 갈등을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보는 입장은 1990년대에도 이어지는데,¹⁵⁾ 이전의 연구와 달라진 것은 여성주의(feminism)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¹⁶⁾ 박일용은 강쇠를 가부장적 악한으로 파악하여 강쇠에 대해서는 후자의 논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만 옹녀를 가부장적 질곡 가운데 놓인 인물로 본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옹녀의 모습을 통해 조선후기 부녀층의 신분적 전락 과정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변강쇠가>라고 주장하였다.¹⁷⁾ 강진옥은 신화적 여성인물의 ‘쫓겨남’ 모티프를 중심으로 옹녀의 쫓겨남을 격리단계의 변모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재앙을 대속하는 희생제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파악하였으며,¹⁸⁾ 정출현은 옹녀라는 중심인물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변강쇠가>가 하층 여성의 삶의 질곡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았다.¹⁹⁾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김종철은 신재효가 창이 전승된 실전 판소리 중 유일하게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은 괴기미(怪奇美)에 주목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불합리한 결말 부분이 자아내는 미적효과를 기괴미(奇怪美)로 파악하고, 그것을 투쟁과 격변으로 점철된 혼란한 사회의 반영물로 보았다.²⁰⁾ 이후 김창현은 <변강쇠가>의 주제 및 성격의 그로테스크(grotesco)한 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고,²¹⁾ 서

15) 구본기는 <변강쇠가>를 사회 공동체의 도덕물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에 대한 징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았다. 구본기, 「판소리게 소설의 정명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6) 여성주의(feminism) 관점은 전통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해당한다. 이 관점에서는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된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17)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18) 강진옥, 「<변강쇠가>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3.

19) 정출현, 「판소리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20) 김종철, 「<변강쇠가>의 미적특질 - 괴기미 추구하고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4집, 1993. 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21) 김창현, 「<변강쇠가>의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그로테스크」,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

유석 또한 김종철이 <변강쇠가>의 미적 특질을 기괴미로 본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는 기존 사회 질서와 규범에의 일탈과 무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²²⁾

이 외에도 <변강쇠가>의 특이한 색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여러 논자의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동원은 조선시대 의료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변강쇠가>를 자세히 살핍으로써, 강쇠가 당하는 장승동티가 당시 유행했던 괴질(怪疾)이라는 전염병의 증세와 유사하다고 보았다.²³⁾ 김선현은 <변강쇠가>에 나타난 공간의 양상을 분석하고, 당대 유랑민들의 현실적 삶의 조건에 근거하여 작품 속 공간이 형상화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²⁴⁾ 특히 최동현은 <변강쇠가>의 갈등을 강쇠/옹녀와 향촌사회와의 갈등, 강쇠와 장승과의 갈등, 강쇠와 유랑민의 갈등으로 나누어 문화적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이 작품을 조선 후기 농촌 사회의 계층분화 과정에서 배태된 부정적 인물인 강쇠와 옹녀, 그리고 유랑민들에 대한 향촌사회의 자기보호 의지를 드러낸 작품으로 보았다.²⁵⁾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와 웹툰 <마녀>에 나타난 공동체와 타자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홍해월은 공동체에 의해 쫓겨난 ‘여성의 이야기’라는 것에 주목하여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공동체(주체)와 타자의 관계로 바라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타자를 만드는 공동체, 타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주체의 억압에서 벗어나 함께 공존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타자, 타자와 공존하는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 등 공동체와 타자의 관계형성에 집중하여 <변강쇠가>를 살펴보았다.²⁶⁾

과 공동체』, 2004.

22)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16집, 2003.

23) 신동원,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67, 역사문제연구소, 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에 재수록)

24) 김선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공간과 유랑민의 삶」, 『판소리연구』 34, 판소리학회, 2012.

25)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 61집, 국어문학회, 2016.

26) 홍해월, 이명현, 「<변강쇠가>와 웹툰 <마녀>에 나타난 공동체(共同體)와 타자(他者)」,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변강쇠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가 논의의 지평에 올라 활발하게 탐색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품의 갈등 구조와 인물 형상, 그리고 미적 특질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변강쇠가>의 주인공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집단에 의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폭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작품 서두에서 옹녀가 추방되는 과정, 중반부에서 강쇠가 장승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과정, 그리고 강쇠의 시체에 의해 다른 인물들이 죽어나가고 강쇠의 시체가 갈아 없어지는 과정 등 <변강쇠가>에서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폭력의 관점에서 <변강쇠가>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분명 문제적이다.

이는 우선 현실에서만뿐이나 문학에서도 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두루 이야기되고 있는 폭력의 일상적인 성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상대적으로 무더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시대의 성스러움을 가장한 폭력부터 역사시대의 실존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러한 폭력들이 문학과 만나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폭력을 직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학과 우리 문학사에서 폭력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발휘했던 연구자들에 의해, 문학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폭력론이 형성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먼저 아담 스미스, 아담 퍼거슨, 프랜시스 허치슨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사회학자들에 의해 폭력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사회를 특징짓는 것이 무엇보다 인간의 도덕적 능력임을 주장하며, 폭력을 단지 도덕적·제도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충동과 열정의 산물로 이해했다. 때문에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7.

초기 폭력론에서는 폭력의 내적 구조와 동학, 폭력적 제도와 조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 개입될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좁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대표로 하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에 가해지는 착취의 폭력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폭력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이 제기된 바 있다. 게오르크 짐멜과 같은 학자에 의해서는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의 투쟁에 나타난 폭력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형태라는 지점에까지 폭력론이 나아갔다.

이후 현대사회학에서는 요한 갈통에 의해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의 개념이, 피에르 부르디외에 의해서는 상징적 폭력의 개념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인리히 포피츠나 볼프강 조프스키는 타인에 대한 의도적인 육체적 상해를 가하는 권력행위로서의 폭력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폭력행위 자체와 폭력상황이 어떻게 발생하고 폭력 희생자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파악되어 폭력적 상호작용의 역동성이 규명되기도 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양차 세계대전, 공산주의의 몰락, 냉전적 핵 경쟁 등과 같은 20세기의 조직화된 폭력들이 근대 사회사상이 가지고 있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뒤흔드는 것인가를 규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그문트 바우만은 홀로코스트에 드러난 폭력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의 체제적·문화적 핵심양상들이 집단적 폭력과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양의 폭력론이 한국으로 전파되며 한국문학에서는 특히 1980년대 광주에서 발생한 극단적 폭력이 준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 폭력 분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현은 지라르의 『폭력의 구조』라든가 미셸 푸코의 『시칠리아의 암소』와 같은 외국 이론 연구서를 번역하여 발간함으로써, 현실의 폭력에 대한 문학의 대응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연구서뿐만 아니라 실제 그의 평론에서도 ‘폭력’이라는 주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글을 작성하여, 서양의 폭력론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한국적 폭력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은 현대문학에 나타난 폭력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유철상은 한국 현대소설에 형상화된 악의 모습을 검토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적 의식이 사회 전체의 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해 악이나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해 왔던 과정을 살폈다.²⁷⁾ 윤지영은 신소설에 나타난 폭력 모티프에 주목하여 근대 초기 소설에서 폭력의 재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한 바 있다.²⁸⁾

고전문학에서는 주로 구비문학 분야에서 폭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영배는 민속극에서 폭력이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 표현과 내용을 구성하는 소재로서 각각의 양식에서 특정한 주제를 구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의미나 주제가 폭력을 화두 혹은 의제로 설정한 집단의 인간 존재와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문화의 생산과 유통 및 전승의 방식을 조율한다고 보았다.²⁹⁾ 이 외의 연구들은 주로 설화에 나타난 희생제의의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그 안에 있는 폭력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³⁰⁾ 그 중 신호림은 <지네장터>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인식과 작품의 의미를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도 했다.³¹⁾ 흥미로운 점은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르네 지라르의 폭력론을 수용하여 한국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전소설 분야에서도 작품에 나타나거나 숨어 있는 폭력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다.³²⁾ 이들 연구는 주로 작품의 소

27) 유철상,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악과 폭력의 문학적 형상화」, 『비교문학』 제 45집, 한국비교문학회, 2008.

28) 윤지영,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재현과 근대성」, 『인간과 문화 연구』 제 17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10.

29) 이영배, 「민속극에서 폭력의 성격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 20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년.

30) 박정세, 「한국 희생전설의 구조와 희생관」,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 실천민속학연구, 2007 ;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 『어문연구』 3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31) 신호림, 「<지네장터>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극복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 3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재로 등장하거나 인물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폭력을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 외에도 정병설은 한국에서의 차별과 적대의 연원을 전근대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로, <구운몽>에 나타난 차별적 시선을 확인하고 타자로 인식된 대상을 향해 어떻게 폭력이 작동하는지를 밝혔다.³³⁾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변강쇠가>의 특이한 색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코드를 작품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폭력’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시대적으로 1881년에서 1884년 사이에 정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재효 본 <변강쇠가>가 18세기에 이미 판소리 12마당 중 하나로 불렸던 <변강쇠가>의 원래 모습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도 가장 늦은 시기이고, 여타의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각 자료들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렇게 이야기의 전개방식과 결말이 나름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32)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심치열, 「<운지경전>에 나타난 폭력의 대응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50집, 한국언어학회, 2003. 유광수, 「<옥루몽>, 성애(性愛) 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정미,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김용기, 「洪世泰 <金英哲傳>에 나타난 세 가지 暴力과 문학사적 의미」, 『어문론집』 66, 중앙어문학회, 2016.

33) 정병설, 「조선시대 차별과 적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구운몽』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Ⅱ. 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폭력의 개념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³⁴⁾가 발표되기 이전까지 개인과 사회, 국가의 폭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마그나 카르타>이후 18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으로 이어지며 이전에는 없었던 인권의 개념이 “발명”³⁵⁾되고, 제1·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폭력과 전쟁의 종식을 부르짖으며 각 국가가 연합하여 평화를 외치고 있는 21세기 현재까지, 어느 시대였건 인류는 결코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폭력의 종식을 외치는 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에 들어서는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에서부터 사회와 국가까지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준의 폭력들이 자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폭력에 대한 오래고도 다양한 관심이 지속되어오고 있지만, 폭력의 근본에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현상의 다양성만큼이나 폭력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망이 상당히 넓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문학 연구에서 폭력을 다룰 때 그 기본이 되는 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일은 늘 어려운 문제였다.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력이란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³⁶⁾으로 정의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34) <마그나 카르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언급되는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근대 이후 이를 기반으로 인권의 개념과 그 중요성이 점차 서구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권력으로부터의 폭력이나, 불필요한 혹은 필요이상의 과한 개인 간의 폭력 역시 자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반하는 폭력에 대해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그나 카르타>는 폭력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5) 린 헌트,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결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타인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행위, 주거 침입 행위 및 기물 파손 행위까지도 폭력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³⁷⁾ 이러한 정의와 규정은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폭력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써, 폭력이란 물리적 수단을 통해 발휘되는 힘이며, 폭력행위란 이를 통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소유물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의 개념은 모든 폭력의 행위에 대한 현상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오늘날 폭력의 다양한 양상과 세태에 비추어 보자면, 물리적 폭력의 개념은 오히려 그 범위와 경계가 매우 협소하다. 언어나 심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는 비(非)물리적인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폭력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폭력의 사전적 정의(定意)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폭력에 대한 개념과 지금까지의 연구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가 늘 폭력에 노출되었던 만큼 폭력에 대한 연구 역시 인류의 역사와 그 궤도를 같이 한다. 그 중 플라톤에 의해 논증된 폭력의 개념은 인류가 폭력과 상생하며 그에 대해 고민해왔던 기나긴 역사 중 앞 페이지를 장식한다. 플라톤에게 있어 정의(正義)란 신이 인간에게 준 몫에 알맞게 행동하는 것, 즉 신법(神法)으로서 범법을 다스리는 것과 오류와 실수들을 정화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신은 정의롭고 지혜롭고 전체적이며, 신의 도움으로 인간의 부정의와 비양심적인 게으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그에게 있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덕(德)의 본질적인 요소는 건전한 영혼, 즉 내적 질서와 조화를 갖는 영혼의 소유에 있다. 영혼의 덕(德)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로 분류된다. 플라톤에 의하면 인간에서 영혼은 최고로 중요한 존재이며, 불멸하며, 선재하며, 육체의 사후에도 존재한다.³⁹⁾

36)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37) 형법, 제260,276,283,319,366조, www.law.go.kr(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38) 플라톤, 천병희 역, 『법률』, 숲, 416면.

이처럼 영혼을 중시하는 그는 『국가』에서 영혼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 기개 그리고 욕망이다. 이 중에서 그가 폭력과 관해 다루는 부분은 욕망과 기개 부분으로, 욕망의 부분에서 육체적인 욕망과 이를 충족시켜주는 부(富)를, 기개에 대한 부분에서는 올바르게 교육된다면 참된 용기가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이것들이 잘못 되면 맹목적인 잔인성 혹은 방자함 등의 폭력적인 요소로 변질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그가 정의(定意)한 정의(正義)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이 허락한 인간사회의 규율과 정의, 윤리 등에 대한 위반이 곧 폭력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플라톤에게 폭력은 직접적인 정의를 내려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의나 현상, 개념들에 대한 위배가 폭력인 것이다. 즉 플라톤이 분석한 폭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며, 보다 추상적이고, 보다 넓고 지엽적이다.

이후 근대에 와서는 ‘자연상태’의 개념이 제시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공권력으로서의 국가적 폭력이 일반적이고 단순한 폭력과 구분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공권력은 이 ‘자연상태’의 폭력을 억압하는 반대폭력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까지 많은 학자들이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근대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사회상태 이전의 자연상태를 가정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폭력의 양상을 주장했다. 홉스는 이런 상태를 인간의 본성 때문이 아닌 신체나 정신능력이 모두 평등한 인간들이 겪는 경쟁과 불신의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전쟁상태는 인간의 평등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확고하고 저항하기 어려운 권력이 없이는 이런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홉스가 가정한 자연상태에서 주목할 점은 자연 상태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 성립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즉, 당시 세상에 만연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군주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성립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라는 논리가 정립된 것이다.

39) 최양석, 「플라톤의 폭력에 대한 이해」, 『철학논총』 제36집, 새한철학회, 2004.

폭력에 대한 연구는 고대와 근대를 넘어 현대까지 이어졌다. 20세기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에릭 홉스봄은 20세기를 두고 ‘폭력의 세기’라고 정의했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놓고 보면, 유태인 대량학살의 근간이 되었던 나치의 홀로코스트, 세계 1·2차 대전, 중동과 베트남을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발발했고, 급진적인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이 실력을 행사하며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던 시대였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진행된 폭력 연구는 기존에 팽배했었던 홉스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한다. 특히 폭력의 기원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근·현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을 만큼 현격히 달라졌다. 르네 지라르의 이론이 대표적인데, 폭력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홉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⁴⁰⁾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기 위한 집단의 폭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집단이 만들어낸 ‘희생양’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지라르는 이러한 폭력을 ‘초석적 폭력(violence fondatrice)’이라고 정의한다.⁴¹⁾ 이때 초석적 폭력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 질서를 갖추어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폭력의 기원을 개인 對 개인의 관계에서 집단 對 개인의 관계로 그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라르에 이르러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은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 수정된다.⁴²⁾ 지라르는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기원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폭력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회의 성립과 유지를 폭력의 예방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폭력의 묵인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곧 홉스와 지라르의 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동시에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시각적 차이를 의미하며, 폭력에 대한 연구가 현대에 들어서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됨을 짐작케 한다.

40)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19면.

41) 김모세, 『르네 지라르-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182면.

42) 오양순, 「르네 지라르의 안티 유토피아적 세계와 유토피아적 결말에 대하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0.

이러한 기조는 비단 르네 지라르만이 선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앞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Gewalt’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폭력을 연구했다.⁴³⁾ Gewalt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은 힘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폭력의 정당성을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아주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있으며 그 시대에서는 어떤 행동을 두고 가치평가와 관련된 ‘해석상의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⁴⁴⁾

앞서 홉스의 사회질서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질서이며, 이 투쟁을 종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법의 제정이었다. 따라서 사회질서는 법의 제정을 통해 정립된 법질서와 같은 개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법질서는 자연상태에서 오는 폭력상태를 종식시킨 평화적인 상태가 되고, 법은 폭력의 반대 개념이 된다. 그러나 홉스의 논리와는 반대로, 벤야민은 법과 폭력을 대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법과 그 법질서 자체의 본질적 특징이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 아닌 ‘법 수호(守護)’ 그 자체이며, 법은 결국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 외에도 보다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폭력의 개념을 연구한 학자도 있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물리적 폭력으로 대두되는 일상적 폭력을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고 사회연구로 확대시켰다. 그는 “폭력이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제적 삶이 잠재적으로 가능한 것보다 협소해지도록 만드는 외적 영향력”⁴⁵⁾이라고 정의했다. 즉 인간에게는 생

43) 통상 폭력으로 번역되는 독일어의 ‘Gewalt’는 폭력을 비롯해 힘, 권력, 권능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즉 영어의 violence와 force의 뜻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이다. 폭력, 힘, 무력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violence와는 다르게, ‘관리 감독하다’, ‘지배하다’의 뜻을 가진 walten에서 파생된 Gewalt는 ‘허가된 강제력’이나 ‘적법한 힘’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이 국가권력(Staatsgewalt)나 삼권분립(Gewaltenteilung) 등의 단어에도 Gewalt가 등장하는 이유이며, 이를 통해 Gewalt에는 부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44)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산논, 2007, 7면.

45)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412~419면.

존, 복지, 정체성, 자유의 욕구 등이 있는데, 이런 욕구의 실현가능성을 제한 혹은 방해함으로써 욕구 실현이 잠재적으로 가능했던 것보다 협소하게 만드는 현상이 폭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는 폭력이 물리적 피해를 의도하는데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확대된 개념이며, 평화를 적극적 차원으로 개념화하며 폭력 연구의 지평을 사회연구로 확대시키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서양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의 발전과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근대를 대표하는 홉스의 사상 이후로 현대에 들어서야 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해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폭력에 대한 동양의 구체적인 연구는 서양의 연구흐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더뎠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의 ‘violence’를 번역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로 동아시아에 등장했다고 여겨진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방증한다.⁴⁶⁾ 그렇다고 해서 폭력에 대한 동양권의 문제의식이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는 오히려 플라톤의 폭력에 대한 개념보다도 한발 앞서 간접적으로나마 폭력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46) ‘暴’은 본래 독음이 사나울 ‘포’로서, 본디 글자는 ‘暴(사나울 포)’인데, 맨 아래 자형(字形)도 ‘本(본)’이 아니라 원래는 ‘𢇛(빨리 지나갈 도)’자로서 열 사람을 겸할 만큼 매우 크고 빠르다는 뜻이다. 또한 暴(暴)는 ‘日(해)’와 ‘出’과 ‘米(쌀)’와 ‘扌(두 손)’으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해가 떴을 때 두 손으로 쌀을 받들어 햇볕을 쬌 모습을 나타낸 상형글자로서, 사납다는 뜻 이외에도 ‘햇볕에 말리는 건조’를 뜻한다. 한편, ‘폭력’을 뜻하는 영어 ‘violence’도 자연현상 혹은 사람의 행동과 감정 따위의 격렬함·맹렬함을 뜻한다. 이 단어의 형용사형인 ‘violent’는 라틴어의 ‘*violentus*’에서 파생되었고, 동사형인 ‘*violate*(여기다, 위반하다)’는 라틴어의 ‘*violatus*’에서 나왔는데, 이들 모두 라틴어 ‘*violare*’의 변형 내지는 활용형으로, ‘힘(strength)’을 뜻하는 ‘*vis*’와 직접 관련된다고 한다. 또한 ‘*vim*’은 튼튼하고 강건한 에너지와 열정(robust energy and enthusiasm)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으로써, 힘(strength)을 뜻하는 라틴어 ‘*vis*’의 대격(對格:직접 목적어) 그 자체로서, 그리스어에 힘(strength)을 뜻하는 ‘*is*’나 ‘급히 서두르다(hurry)’는 뜻의 ‘*hiesthai*’와 유사한 혈통관계에 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한문과 영어의 어원(語源)을 보면, ‘폭력(暴力)’이란 영어 ‘violence’의 번역용어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로 여겨지며, 갑자기 사납게 맹렬히 터져 나오는 힘을 뜻한다. 김지수, 「폭력과 분노에 대한 동양 법철학적 성찰」, 『법학논총』 36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8~9면 참고.

한자문화권으로 일컬어지는 동아시아 문화를 놓고 보자면, 폭력(暴力)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暴’자(字)는 사납다 혹은 햇볕을 쪼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표의어(表意語)인 한자의 특성상 고대에는 이 ‘폭(暴: ‘사나울 포’로도 읽음)‘자는 주로 낱글자로 쓰였는데, 『시경(詩經)』 제2편 아(雅)에 등장하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정치를 비유한 ‘暴虎(포호)’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예이다.⁴⁷⁾ 이외에도 『서경(書經)』의 태서(泰誓)편에는 ‘暴虐(포학)’한 폭군 걸주(桀紂)에 대한 정벌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내용이, 입정(立政)편에는 ‘暴德’한 짓을 형벌에 처하는 정당성이, 주관(周官)편에서는 사법관인 사구(司寇)의 직책이 ‘暴亂’의 대상을 처벌하는 것임에 관한 내용이 있다.⁴⁸⁾ 비록 ‘폭력’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납고 폭력적인’ 성질과 현상에 대해 동양에서도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해왔다. 특히 『시경(詩經)』이 주(周)초(B.C. 1100전후)에서 춘추 중엽(B.C. 600년경) 시기의 시가들을 집대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폭력에 대한 동양의 문제의식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보다도 훨씬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폭력의 전장(戰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제후들을 중심으로 힘의 각축전이 벌어졌고, 사회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제자백가(諸子百家)들의 출현으로 인해 다양한 사상과 이론들이 태동되며 학문 및 학파의 기틀을 다져 나갔다. 제후들이 자신들의 세(勢)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장(戰場)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며 피비린내 나는 힘겨루기를 통해 국가와 군주의 모습을 갖춰가는 동안, 병사들과 일반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폭력을 목도하고 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정치 및 학문적으로 요

47) 不敢暴虎，不敢馮河，人知其一，莫知其他. (『詩經』「小雅-小旻」)

48) 今商王受弗敬上天，降災下民. 沈湎冒色，敢行暴虐，罪人以族，官人以世.

(『書經』，「泰誓」)

傑德，惟乃弗作往任，是惟暴德，罔後. (『書經』，「立政」第一章)

司寇掌邦禁，詰姦慝，刑暴亂. (『書經』，「主官」第二章)

순(堯舜)시대의 태평성대를 향한 갈망과 갈증은 어느 때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후대에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유가(儒家)의 대학자인 공자(孔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타개할 이상적 모델로 요순시대를 들었다. 그는 인본주의(人本主義)에 기반하여, 덕(德)이라는 개념을 통해 당시의 혼란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도덕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 여겼다. 즉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무자비한 폭력적 상황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덕(德)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맹자(孟子) 역시 이러한 공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였다. 다만 공자의 주장은 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망으로 요순시대로의 시대적 회복을 주장했다면, 맹자는 인정(仁政)이나 인의(仁義)정치 등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방(放) · 정(征) · 벌(伐) 등의 개념을 들어, 위민(爲民)의식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력(武力) 혹은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했다.

먼저 방(放)은 폭정을 휘두르는 군주를 내쫓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孟子)』에서는 제선왕이 맹자에게 “탕왕이 폭군 곽(桀)을 내치고, 무왕이 폭군인 주(紂)를 정벌하였다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옛 책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방(放)이란 놓는 것이다. 『서경(書經)』에는 탕왕은 폭군 곽을 남소지방으로 내쫓았다.”라는 설명이 보인다.⁴⁹⁾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민본주의(民本主義)와 위민(爲民)의식이 있다. 즉, 폭정을 일삼는 군주에게 대항하는 방법으로 그를 내쫓는 무력(武力) 혹은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의(仁義)를 실천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는 당위성이 부여된 것이다. 맹자는 이를 두고 사욕(私慾)이 철저히 배제된 위민(爲民)이라는 대의명분하에만 행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하극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49) “齊宣王問曰，湯放桀，武王伐紂，有諸？孟子對曰，於傳有之。”[集註] 放置也。書云，成湯放桀於南巢。(『孟子』, 「梁惠王章句 下」)

정(征)은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며,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백성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한 포악한 군주다. 맹자는 “정(征)이라 함은 바로잡는다(正)는 말이 되는데…(중략)…백성들이 포악한 군주에게 학대받는 바가 되어, 모두 인자(仁者)가 자기 나라를 바로잡으러 오길 바라는 것이다.”⁵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征)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래를 벌(伐)하는 것이지, 대등한 나라가 서로 정(征)할 수는 없다.”⁵¹⁾고 했다. 인정(仁政)의 실현을 위해 정(征)을 행하는 주체가 단순한 직위의 상하관계나 불필요한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대상인 주변국이 아닌, 덕(德)의 유무에 따른 상하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의(仁義)와 인정(仁政)을 위한 정(征)에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반면, 정당치 못한 하극상으로부터 정치적 안전을 꾀했다.

벌(伐)은 의미상 앞에 있는 방(放)이나 정(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당성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사용되어지는 무력 혹은 폭력의 형태라는 것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맹자(孟子)』에서는 “벌(伐)은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그 죄를 밝혀 벌하는 것”⁵²⁾이라고 설명하여, 방(放) · 정(征)과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다. 맹자는 “천자(天子)는 질책하고 꾸짖어 다스려도 벌(伐: 군사를 일으켜 침공함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제후(諸侯)는 벌(伐)은 하여도 천자처럼 꾸짖어 다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오패(五霸)라 함은 뜻과 이해관계가 맞는 제후들을 모아 다른 약소국의 제후들을 정벌(征伐)한 패주(霸主)들로, 삼왕(三王)에게 죄인이 되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정당성 없는 정벌(征伐)에 일침을 가했다.⁵³⁾ 즉 무력 혹은 폭력의 사용에는 언제나 정당성이 기준이 되어왔으며, 모든 무력이나 폭력은 민본주의(民本主義)에 기초한 인정(仁政)을 통해 인의(仁義)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일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짐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다.

50) “征之爲言正也. 各欲正己也. 焉用戰, 民爲暴君所虐, 皆欲仁者來正己之國也.”

(『孟子』, 「盡心章句 下」)

51) “征者, 上伐下也. 敵國, 不相征也.”(『孟子』, 「盡心章句 下」)

52) “伐者奉天子之命, 聲其罪而伐之也”(『孟子』, 「梁惠王章句 下」)

53) “天子, 討而不伐. 諸侯, 伐而不討. 五霸者, 擄諸侯, 以伐諸侯者也. 故曰, 五霸者, 三王之罪人也.”(『孟子』, 「告子章句 下」)

위와 같은 공자나 맹자로 대표되는 이러한 유교적 사상은 무력(폭력) 사용에 대한 이들의 주장과 더불어 고대부터 근대까지 한자문화권의 동양 여러 나라들의 주요 사상이 되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기틀과 근간이 유교철학에 기반한 성리학에 있었음이 우리와 가장 친숙한 예(例)이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근대화와 식민지, 이데올로기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동양 국가에서 폭력에 대해 진일보한 연구는 답보상태를 넘어 일시적으로 후퇴한다. 먼저 가까이에서는 일본부터 서구 열강들이 자국 경제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활성화를 위한 식민지 전쟁에 뛰어들면서 일본을 제외한 동양의 여러 국가는 이들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半植民地)가 되어 국가의 존폐위기 문제에 봉착하였고, 비통에 빠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력시위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으며, 설상가상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는 세계 1·2차 대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전쟁의 위험을 몸소 체험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봉합된 종전협정 이후에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가 있었고,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여파로 대다수의 지식인들의 학문 활동이 사장(死藏)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국가재건과 국권 및 경제회복이라는 우선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했던 탓이다.

상황이 가장 나은 것은 일본이었다. 동양국가 중 서구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 고대와 중세까지만 해도 중국과 한국에서 문화와 학문을 흡수했던 일본은 근대에 들어 동양에서 가장 비약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룬 국가가 되었고, 식민지 착취를 통해 얻은 경제적 안정은 이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이 시기에 대다수의 서양 학문은 이른 개방을 했던 일본에 가장 빨리 전해졌다. 앞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violence’를 번역하기 위해 창조된 단어로 동아시아에 등장했다고 여겨진다는 연구결과에서 미루어 보건데, 아마 이 시기에 일본을 통해 전해져 번역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때문에 근현대에 동양에서 진행된 폭력에 대한 연구는 동양철학 쪽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서양에서 선행되어온 것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적 시각은 학자마다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현대적 의미의 폭력에 관한 동·서양의 연구는 크게 엇갈리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폭력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잠재적으로 원래 가능한 것보다 협소해지도록 만드는 외적 영향력이라는 요한 갈통의 정의는 21세기의 현실을 살아가며 직·간접적으로 일상적 폭력에 맞닿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큰 공감대를 갖게 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데이트폭력 등의 신조어가 보여주듯이 폭력은 일탈적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생활공간 및 환경에 이미 만연하다. 또 신체폭력, 언어폭력, 상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들에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사실은 폭력이 몸에서부터 말, 기호, 성(性)에 이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가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인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각종 제도들과 때때로 언론에 보도되는 지극히 ‘합법적’인 힘이라는 미명아래 행사되는 국가적 폭력들 역시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삶을 촘촘하게 가로지르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한 현대인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이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대사회에서 폭력이 더욱 확대되었다는 입장을 반박한다. 그는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폭력이 감소해왔고, 어쩌면 현재 우리는 종(種)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폭력의 추이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느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느냐 하는 문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부분이며, 우리가 오늘날이 폭력의 시대라고 믿기 쉬운 이유는 우리의 타고난 인지적 도구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⁴⁾ 그는 이에 대한 반발에 대비라도 하듯 그 증거로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제시한다. 폭력의 감소라는 스티븐 핑커가 제시한 폭력 담론과 그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폭력이 진짜 증가했는가 혹은 감소했는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목할 점은 구

54)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 2014, 13~15면 참고.

체적이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폭력연구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반면 정향균은 핑커가 폭력의 단면만을 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핑커가 언급한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도덕적으로 나쁜 폭력, 즉 적대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성의 폭력, 물리적·신체적 폭력을 주로 의미한다. 정향균은 이에 더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 스스로에게 가하는 자기 연관적 폭력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폭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핑커가 주시한 현시대의 폭력의 증가와 감소의 문제는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폭력의 통계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폭력의 증가와 감소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폭력으로 인지하느냐라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폭력이 단순히 신체적 폭력으로만 보이지 않고, 심리적·정서적 폭력이나 구조적·시스템적 폭력이 가시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폭력의 감소추세를 확인함으로써 말미암아 근대문명의 승리를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⁵⁵⁾ 이에 기반하여 그는 “폭력이란 행위능력이 있는 주체(인간이나 특정한 동물 등), 사회적 시스템이나 구조 또는 담론이 때로는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수단 없이 고차원적인 정신과 감정이 있는 대상(인간이나 동물 등)이나 그것과 밀접히 연결된 대상(담론, 구조나 시스템)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위해행위”⁵⁶⁾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력의 수행이나 폭력의 과정 전에 윤리적 맥락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⁵⁷⁾

이처럼 학자들마다 시대적·환경적 요소와 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그들이 내린 정의와 개념적 의미망에 있어 일정한 차이

55) 정향균, 『아비뇽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9면.

56) 정향균, 위의 책, 132면.

57) 정향균, 위의 책, 133면.

가 있고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그렇게 정의된 폭력의 개념이 일반적 혹은 일상적으로 맞닿아 있는 우리네 삶에 꼭 들어맞는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문학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의미하는 폭력이란 타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위해 및 훼손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그 존엄성, 신체 및 정신적 자유, 정체성,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언어적·비언어적·정신적·관계적 폭력을 의미한다.

2. 폭력의 유형

앞서 본고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해 및 훼손 행위와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그 존엄성, 신체 및 정신적 자유, 정체성,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언어적·비언어적·정신적·관계적인 폭력을 폭력에 대한 의미로 규정했다. ‘폭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공간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되는 방식과 차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사들과 결합하며 다양한 유형을 갖추게 된다. 예컨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국가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폭력시위, 폭력진압 등 폭력의 종류와 범주는 실로 세부적이고 또 광범위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폭력들의 종류를 일일이 세분화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상호간에 폭력의 주체와 피주체가 되는 ‘관계 속의 폭력’이라는 시각에서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⁵⁸⁾

58) 폭력의 다양한 범주와 의미망을 놓고 볼 때 ‘관계 속의 폭력’은 상당히 지엽적이고 축소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는 소설의 특성상 인물과 인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폭력의 특성과 특징을 다루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폭력의 주체와 피주체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對 개인

개인 對 개인의 폭력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써, 신체나 도구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그 구성원들이 맺은 사회계약, 즉 국가가 들어서면서 해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들어서면 지상에는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만연했던 모든 폭력을 국가가 흡수함으로써 그 자신이 ‘폭력’이 되고 압도적인 힘으로 그 누구의 폭력도 허락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홉스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가 체제가 이전보다 훨씬 견고해진 오늘날에도 폭력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인류의 역사를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다. 폭력이 혼돈을 만들고, 그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질서 역시 또 다른 폭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질서는 폭력에 대한 불안에 기초하여 스스로 새로운 불안과 폭력을 만든다. 즉 ‘질서의 고유한 폭력’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들어서고 국가에게 모든 권력을 양도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폭력으로 대두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사라질 것이라던 홉스의 견해와는 달리, 21세기인 지금까지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적 폭력양상은 의연하게 지속되고 있다.

요한 갈통은 이러한 개인 對 개인의 폭력을 개인적 폭력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개인적 폭력이란 단순한 구타나 살인을 비롯하여 음식물이나 공기, 물 등과 같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투입요소를 차단하거나, 신체적 및 정신적 활동과 같은 산출요소를 제지하고 위축시키는 행위 등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일반 상해 등이 포함된다. 이런 개인적 폭력은 통상 물리적 수단을 통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신체의

연장인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혹은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협박이나 정신적 상해 등을 통해 훼손을 암시하는 점에 미루어 직접적 폭력의 범주로 구분된다.⁵⁹⁾

(2) 집단 對 개인

집단 對 개인의 폭력은 개인 이상의 집합체의 부분집합체로 보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집단 내에서 문제시 되는 개인 혹은 집단의 정체성이나 운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 밖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집단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학교나 회사, 시·도·군 단위의 행정 구역에 기반한 지역사회, 넓게는 국가와 민족까지 포함한다.

자연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폭력은 국가 혹은 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더 이상 정당하게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던 홉스의 기대와는 달리, 폭력의 또 다른 유형이 발현됐다. 이를테면 국가가 가진 ‘정당한 폭력’의 사용에 대한 권리로 경제적 착취나 정치적 억압과 같은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에 대한 문제가 점차 구조화된 것이다.

르네 지라르는 이를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한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인간 문화는 모방적 갈등과 대리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두 원리가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보았다.⁶⁰⁾ 지라르는 인간을 호모 미메티쿠스(Homo Mimeticus), 즉 타인과 같아지거나 그 이상이 되려는 욕망을 가진 모방하는 인간으로 인식했다. 그는 폭력의 뿌리에는 경쟁의 모방적 성향이 존재함에 주목하며 ‘모방

59) 요한 갈통, 앞의 책, 414~415면.

60) Lefebure, Leo D. "Victims, violence and the sacred: The thought of René Girard", *The Christian Century*, 113 no.36, 1996, p.1226.

과 욕망의 관계’에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잠재된 폭력은 모방의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⁶¹⁾ 또 욕망에 대한 모방은 경쟁심을 낳고, 경쟁심은 다시 역으로 모방을 낳는다. 경쟁적 욕망이 커질수록 내재된 위험 또한 커지게 된다. 지라르는 인간 집단 가운데에는 아주 강한 경쟁적 갈등 성향이 있고, 이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⁶²⁾

공동체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방위기는 끊임없이 번져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폭력은 모방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경쟁에서 유발되고, 이런 욕망들이 중층적으로 얹히면서 집단 구성원 서로가 서로에게 스캔들(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스캔들이 집단화하고, 집단 전체의 문제가 되자 이 집단적 걸림돌을 해소시키기 위해 인류가 취해온 방식이 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 즉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제의는 공동체 전체를 그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제물에게로 향하게 한다.”⁶³⁾라고 주장했다. 희생제의는 도처에 퍼져 있는 분쟁의 씨앗을 희생물에게로 집중시키고, 분쟁의 씨앗에다가 부분적인 만족감을 주어서 폭력의 방향을 딴 데로 돌려버린다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라르는 하나의 공동체가 존속하고 번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집단의 폭력, 즉 ‘초석적(礎石的)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초석적 폭력이란 바로 희생양에 대한 집단적 폭력을 의미한다. 즉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 발생적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 질서를 갖춰나가는 원동력을 다지기 위해서 ‘희생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집단 對 개인의 폭력구

61) Charels Hampton, “Beyond reciprocal violence: René Girard and Siegrfried Sassoon”, *Practical Theology*, 2008, p.65.

62) 르네 지라르, 김진신 역,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문학과지성사, 2004. 21면.

63)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00, 19면.

조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폭력이 사회 성립의 초석적 조건이 된다는 지라르의 견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사회 자체가 폭력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타자의 희생에 기대서 존속해나갈 것이라는 각성을 일으킴으로써 폭력에 대한 사유의 전환점을 제공했다.⁶⁴⁾

(3) 집단 對 집단

집단 對 집단의 폭력은 가정, 학교나 회사, 시·도·군 단위의 행정 구역에 기반한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식민지를 위한 국가간의 전쟁, 전체주의, 제국주의, 인종우월주의에서 비롯한 홀로코스트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정치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로 규정했던 것은 폭력의 잔혹성과 연속성, 집단성과 그 파급력이 어느 세기보다도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는 개인 對 개인의 폭력이나 개인 對 집단의 폭력보다 집단 對 집단의 폭력현상이 두드러진 시대였다. 그중 유대인에 대한 혐오로 제노사이드(genocide), 즉 유대인 절멸정책을 폈던 독일 나치스의 홀로코스트는 집단 對 집단의 폭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이미 긴 역사를 지니고 있었고, 유럽 각지에도 유대인을 격리하여 거주하게 한 구역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근대이후 나타난 반(反)유대주의를 들여다보자면 조금 더 복잡하다. 히틀러와 나치스는 인종이론을 원용하면서 유대인종 자체를 근절시키면, 유럽에 존재하는 유대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유대인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

64)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 영어영문학』 제52권 3호,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69면.

나 생각지도 못했던 잔혹한 방식의 멸절정책의 내막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밝혀지면서 집단이 집단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의 잔혹성과 그 방대한 규모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나치스가 이처럼 잔학무도한 폭력을 휘두르는 이면을 살펴보면,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갖는 혐오와 게르만민족 우월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여 독일과 나치스 공동체를 위해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돌려서 외부의 희생제물에게로 향하게 하는 개인 對 집단의 폭력유형의 희생양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개인 對 집단의 폭력유형에서는 폭력의 피주체가 개인 혹은 소수였다면, 집단 對 집단의 폭력 유형에서는 폭력의 피주체가 힘의 논리에서 패한 집단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이 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희생양 메커니즘이 존재함은 폭력의 기원이 ‘관계성’ 그 자체에 있으며, 폭력의 본성은 ‘집단적’이라고 보는 지라르의 관점, 즉 폭력의 집단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Ⅲ.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

1. <변강쇠가>의 폭력 장면

문학과 현실, 그리고 폭력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히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류의 작품에서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작품은 드물다. 조선 후기 민중들의 삶을 찌푸리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되는 판소리 사설에서도 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변강쇠가>에서도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개인 간의 폭력과 집단적 폭력이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문제적 폭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변강쇠가>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한다. <변강쇠가>는 분량이 많은 작품도 아니고 중요 등장인물도 많지 않으며 사건 진행도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락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적 순차에 따라 <변강쇠가>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평안도 월경촌(月景村)에 살던 옹녀에 대한 묘사
2. 옹녀의 상부(喪夫)와 반복된 개가(改嫁)
3.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공론(公論)과 만장일치에 의한 옹녀의 훼가출송(毀家黜送)
4. 강쇠와 옹녀의 만남과 당일 행례(行禮)
5. 강쇠와 옹녀가 여러 도방(道傍)을 떠돌 때,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자 하는 옹녀와 그녀와 달리 방탕한 삶으로 옹녀를 고통스럽게 하는 강쇠
6. 옹녀가 강쇠를 설득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 산중생활 시작
7. 밤낮 잠자기와 오입질만 하는 강쇠를 보다 못한 옹녀가 강쇠에게 나무하러 갈 것을 강요

8. 나무는 하지 않고 실컷 잠만 자다 일어난 강쇠가 장승을 뽑아 돌아옴
9. 옹녀는 장승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둘 것을 말하나 강쇠는 오히려 옹녀를 꾸짖고 장승을 패어 땔감으로 사용함
10. 장승 목신(木神)이 원수를 갚기 위해 대방 장승을 찾아가 설원하고 후환을 막아줄 것을 간청함
11. 팔도(八道) 모든 장승이 다 모여 강쇠를 처치할 방법을 공론(公論)함
12. 강쇠에 대한 징치 방법으로 효수(梟首)와 화형(火刑) 등이 제시되나 반려(返戾)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장승에 의한 병 도배가 결정됨
13. 자고 있는 강쇠의 몸을 장승들이 한 번씩 건드리고 나가 온몸에 병이 걸림
14. 옹녀가 강쇠를 치료하기 위해 봉사(奉事)를 찾아가 문복(問卜)하고 경을 읽으나 효험이 없고, 의원(醫員)을 청해 약을 쓰고 침을 맞으나 효험이 없음
15. 강쇠가 옹녀에게 자신이 죽으면 시묘(侍墓) 살이 3년 후에 자결할 것을 말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열 살 아래의 아이라도 옹녀에게 손을 대거나 집 근처에 얼씬이라도 하면 급살할 것이라는 저주를 남긴 후 장승처럼 우뚝 서서 죽음
16. 옹녀가 혼자 치상(治喪)할 길이 없어 다른 남자의 힘을 빌리고자 대로변(大路邊)으로 나가 지나가는 남자를 기다림
17. 중이 지나가다가 옹녀에게 혹하여 강쇠를 치상하고 옹녀와 살기로 하고 왔다가 강쇠의 시체를 보고 죽음
18. 솟대쟁이패의 초라니가 왔다가 강쇠의 원한을 풀고 치상하려 했으나 죽음
19. 풍각쟁이패들이 왔다가 가객, 가얏고쟁이, 북 치던 총각, 칼춤 추던 아이, 통소 불던 소경 다섯 모두 숨이 끊어짐
20. 재상댁 마종(馬從) 뎡득이가 와서 갈퀴로 강쇠의 부릅 뜬 눈을 감기려다 실패하고는 도망감
21. 옹녀가 뎡득이를 쫓아가 설득해 다시 데리고 오고, 뎡득이는 떡메로 강쇠의 시체가 있는 방 뒷벽을 쳐서 송장들을 쓰러뜨림
22. 송장 여덟을 다 지고 갈 수가 없어 샅군을 얻으려는 찰나 마침 각설이패 셋이 옴

23. 넷이서 각기 송장 둘씩을 지고 가다가 길가 언덕에서 송장짐을 대놓고 쉬기 위해 어깨를 빼려는 순간 송장과 짐꾼들이 붙어 떨어지지 않음
24. 웅녀가 강쇠의 시체를 향해 아무리 애걸해도 꿈쩍하지 않음
25. 주변 원두막 주인 움생원이 담배짐인 줄 알고 시체짐에 손을 쑥 넣었다가 역시 시체에 붙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고가는 사람들을 보는 대로 후려들이고자 꾀를 냄
26. 사당패인 가리내패가 움생원의 꾀에 빠져 시체 주변에서 놀다가 시체에 붙어버림
27. 웅좌수(雍座首) 역시 움생원의 꾀에 빠져 옆에 앉았다가 함께 시체에 붙음
28. 오가는 사람들과 원근(遠近)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어 마치 장터와 같이 됨
29. 웅좌수가 굿상을 장만하고 계대네를 청해 굿을 하자, 시체를 진 뎃득이와 각설이패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체에서 떨어져서 흩어짐
30. 뎃득이가 애금히 빌자 시체들이 모두 땅에서 떨어짐
31. 북망산에 급히 가서 시체를 부리자 다른 시체들은 다 등에서 떨어졌지만, 뎃득이가 지고 온 강쇠와 초라니의 시체만은 떨어지지 않음
32. 꽃꽂한 소나무 두 그루 사이로 급히 달려 지나가자 가로로 진 시체가 세 토막이 나서 머리와 다리 부분은 떨어졌으나, 가운데 한 토막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음
33. 절벽으로 가서 같이질 사설을 하며 등에 붙은 시체를 갈아 버림
34. 뎃득이는 웅녀에게 하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웅녀는 월(越)나라 망한 후에 서시(西施)가 소식 없고 동탁이 죽은 후에 초선이 간 데 없는 것처럼 행적을 찾을 수 없음

위의 순차단락을 바탕으로 <변강쇠가>에서 등장인물 사이에 나타난 폭력을 그 주체와 대상, 그리고 폭력이 행사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차 단락	폭력의 주체	폭력의 대상	폭력의 유형	폭력의 방식	비고
3	황해도·평안도 사람들	옹녀	집단vs개인	혜가출송 (추방)	
5	강쇠	옹녀	개인vs개인	비물리적 ·간접적 가정폭력	
8	강쇠	장승	개인vs 개인(집단)	물리적 폭력	장승 집단의 결속과 복수를 초래
13	팔도 장승들	강쇠	집단vs개인	병 도배 (살해)	
16	병들어 죽어가는 강쇠	옹녀	개인vs개인	저주	시체처리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들 을 양산
17	강쇠 시체(원혼)	중	개인vs개인	살해	추후 시체같이 유발의 원인
18		초라니	개인vs개인		
19		풍각쟁이패	개인vs개인		
23		각설이패	개인vs개인	시체에 붙음	
25		움생원	개인vs개인		
26	움생원	가리내패	개인vs개인		
27	움생원	옹좌수	개인vs개인		
32- 33	덥득이	강쇠 시체	개인(집단)vs 개인	시체 같이 (말살)	

[표 1] <변강쇠가>의 폭력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34개의 단락 중 등장인물 간의 폭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총 14개 부분으로, 전체 비중의 40% 가량을 차지한다. 당초 언급한대로 <변강쇠가>가 서사의 진행에 따라 반복적이고 다양한 폭력성을 나타낸다는 설명에 따르자면, 작품 구성 중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면마다 등장인물에 대한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서술자의 묘사나, 등장인물간의 폭력과 갈등에 대한 비중까지 합산해 보면 폭력이 드러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표1]에서 정리한대로 작품에서 드러난 9가지의 폭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5, 8, 16, 17, 18, 19 단락은 개인 對 개인의 폭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5단락은 뽕가출송으로 오갈 데가 없어진 옹녀가 어렵게 일군 가정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자 하나, 이런 옹녀의 바람과는 달리 가정을 건사하기는커녕 도박과 싸움, 음주, 계집질 등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강쇠는 옹녀의 의지를 무너뜨리며 결국 “암만 해도 살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정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 대목에서는 강쇠가 옹녀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없으나, 무책임한 행동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은 비물리적이고 간접적인 가정폭력으로 가정에 타격을 입히는 또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물리적인 폭력은 16 단락에서 장승들에 의해 병 도배를 당해 죽기 직전의 강쇠가 옹녀에게 저주를 내리는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8단락은 옹녀의 간절한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듯 옹녀를 꾸짖고 장승을 패서 땀감으로 쓰는 대목이다. 여기서 장승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닌 영물(靈物)이자 살아있는 존재로, 강쇠에게 도끼질을 당한 심정에 대해 “무죄(無罪)히 강쇠만나 도끼 아래 조각나고 부엌 속에 잔 재 되니 오죽이 원통(冤痛)했나. (중략) 나 혼자 다녀서는 이 놈 원수 못 갚겠다. 대방전(大方前)에 찾아가서 이 원정(原情) 하오리라.”라고 묘사하고 있다. 강쇠가 장

승에게 가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對 개인의 폭력을 넘어, 이후 장승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이자 장승집단이 강쇠에게 집단적 폭력을 휘두르는 정당한 이유와 집단행동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작품 내 폭력의 연쇄성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17~19단락은 시체가 된 강쇠, 즉 강쇠의 원혼이 자신이 죽기 전에 내린 저주대로 옹녀에게 접근한 중과 초라니, 풍각쟁이패를 죽게 만드는 대목으로, 본인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임에도 살해라는 폭력을 휘두르는 대목이다. 23, 25단락 역시 시체가 된 강쇠의 영혼이 죽은 자신과 앞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옮기려는 각설이패와 담배가 들어있는 짐인 줄 알고 손을 댔던 움생원까지 시체에 붙어버리게 만드는 대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방위로 행하는 폭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19, 23, 26단락을 보면 폭력의 대상이 풍각쟁이패, 각설이패, 가리내패 등으로 집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폭력의 주체가 단순히 폭력의 대상을 집단으로 규정하고 집단을 와해하거나 말살을 목적으로 가한 폭력이라기 보다는, 시체를 건드린 대가라는 명목으로 죽거나 시체에 붙어버린 개개인이 받은 폭력의 피해에 집중하여 유형을 파악한 것으로, 개인 對 집단보다는 개인 對 개인의 폭력으로 보기로 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변강쇠가>에 등장하는 폭력은 개인 對 개인의 폭력이 더욱 도드라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적 구도는 추후 등장할 개인 對 집단의 집단적 폭력과 그로인한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사전적 장치로, 작품이 조명하는 집단적 폭력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폭력은 가해자의 입장과 희생자의 입장 두 가지 입장에서 서술될 수 있다. 그 중 가해자의 관점은 다시 찾은 질서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희생자의 무고함을 지우기 위해 여러 조작이 감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변강쇠가>에서 옹녀와 강쇠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것도 이러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감행된 조작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결과

물로서 피쳐형자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을 수는 없으며, 그 죽음이 신체적 죽음이든 사회적 죽음이든 죽음의 묘사에는 집단적 폭력성이 드러난다. <변강쇠가>의 초반부에서 옹녀가 추방을 당하는 부분, 중반부에서 변강쇠를 장승들이 살해하는 부분, 그리고 변강쇠의 시체가 처리되는 후반부에서 이러한 집단적 폭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위에서 언급한 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는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이다. 단순히 폭력의 원인과 수단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의 총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주체와 대상을 밝히고, 그러한 폭력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⁶⁵⁾ 다음으로 폭력의 진행 방식과 수단을 살펴보고 폭력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모습까지를 총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옹녀 추방과 폭력

<변강쇠가>는 월경촌이라는 마을에 살았던 옹녀라는 한 여인을 묘사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고전 소설의 다른 여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옹녀는 빼어난 미모를 갖춘 인물로 묘사된다.

65) 현실의 폭력이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할 수 없듯이,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 역시 그 발생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작품 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발생한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을 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中年)에 맹랑(孟浪)한 일이 있던 것이었다. 평안도(平安道) 월경촌(月景村)에 계집 하나 있으되, 얼굴로 볼작시면 춘이월(春二月) 반개도화(半開桃花) 옥빈(玉鬢)에 어리었고, 초(初)승에 지는 달빛 아미간(蛾眉間)에 비치었다. 앵도순(櫻桃脣) 고운 입은 빛난 당채(唐彩) 주홍필(朱紅筆)로 떡 들입다 꼭 찍은 듯, 세류(細柳)같이 가는 허리 봄바람에 흐늘흐늘, 찡그리며 웃는 것과 말하며 걷는 태도(態度) 서시(西施)와 포사(褒姒)라도 따를 수가 없건마는⁶⁶⁾

위에 제시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옹녀가 서시(西施)와 포사(褒姒)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여성 인물에 대한 묘사가 <변강쇠가>만의 특징은 아니다. 다양한 고전 소설 작품들에서도 주인공은 대개 남녀를 불문하고 빼어난 인물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보통 인물묘사 뒤에 이상적인 남녀가 갖추어야한다고 여겨지던 능력이나 덕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변강쇠가>에서 옹녀를 묘사하는 서술에는 그녀의 미모만이 언급될 뿐이다.

옹녀는 처음부터 미색(美色)만 갖추고 미덕(美德)은 갖추지 못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앵두와 같은 빨간 입술, 버드나무와 같이 흐늘흐늘한 허리와 같은 표현에는 다분히 그 성적인 매력만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⁶⁷⁾ 이처럼 눈에 띄는 정도의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에는 옹녀를 무언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시선이 놓여 있다. 이러한 ‘다름’은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공동체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그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6) 신재효, 「변강쇠가(星斗本B)」,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全)』 권8, 보성문화사, 1978, 533면. 이하 작품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 작품명과 면수만 표시하도록 한다.

67)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性)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6, 열상고전연구회, 1993, 201면.

남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용녀를 더욱 특이한 인물로 만드는 것은 그녀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에 있다.

사주(四柱)에 청상살(靑孀煞)이 겹겹이 쌓인 고(故)로 상부(喪夫)를 하여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 먹듯하겠다. 열다섯에 얻은 서방(書房) 첫날밤 잠자리에 급상한(急傷寒)에 죽고, 열여섯에 얻은 서방(書房) 당창병(唐瘡病)에 튀고, 열일곱에 얻은 서방(書房) 용천병(病)에 퍼고, 열여덟에 얻은 서방(書房) 벼락 맞아 식고, 열아홉에 얻은 서방(書房) 천하(天下)에 대적(大賊)으로 포청(捕廳)에 떨어지고, 스무살에 얻은 서방(書房) 비상(砒霜) 먹고 돌아가니, 서방(書房)에 퇴가 나고, 송장 치기 신물난다.⁶⁸⁾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용녀는 여섯 번의 상부(喪夫)를 겪고 있으며, 남편이 죽을 때마다 끊임없이 개가(改嫁)를 선택한다.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변강쇠가>의 배경이 되는 사회에서 문제는 남편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에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게 시집을 가는 형태의 혼인 제도가 정착되고,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 체제가 강화되면서 여자의 운명은 남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대의 현실이었다. 특히, 개가(改嫁)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부(喪夫)를 당한 여성은 열녀라는 명분으로 희생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⁶⁹⁾ 시대적 흐름상 용녀의 선택은 용납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가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양반가 여성은 상부를 겪더라도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명분을 세울 수

68) <변강쇠가>, 533면.

69) 세종에서 성종 대에 걸쳐 『삼강행실도』, 『내훈』 등의 교화서가 반포되었고,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사대부 계급의 여성 통제가 이념적, 법제적으로 확립된다. 성종 대에 이루어진 사족부녀(士族婦女)에 대한 재가 금지법은 여성 통제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15세기에 확립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16세기와 17세기를 거치며 하층계급까지 확산되어 일반화되었다.

있었지만, 하층 여성은 사회적 명분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급박했다. 남편을 잃은 여성이 홀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현실을 해쳐 나가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당대 사회적 윤리규범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개가(改嫁)를 선택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중적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옹녀와 같은 하층여성들에게 있어서 상부(喪夫)로 인한 개가(改嫁)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며, 그렇게라도 삶을 이어가고자 했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옹녀의 여섯 남편의 사망은 모두 그녀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급상한(急傷寒)은 과한 방사 혹은 성욕 억제로 생긴 병을 의미하고, 당창병(唐瘡病)은 화류병(花柳病), 즉 성병의 일종이며, 용천병은 문둥병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용천병으로 인한 셋째 남편의 죽음은 옹녀와 아무 관련이 없고, 급상한과 당창병 역시 옹녀가 그 직접적인 사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벼락을 맞아 죽거나 비상이라는 독약을 먹고 죽은 것은 옹녀와 직접적인 관련이 더욱 떨어져 보인다. 심지어 천하의 대도로 포청에서 죽은 다섯째 남편의 경우는 옹녀의 과실이 아닌 전적으로 남편의 과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절(守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개가(改嫁)를 선택한 옹녀가 당시 마을 집단에 의해 문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인 만큼이나, 그녀를 일반에서 벗어난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시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옹녀의 신체적 아름다움으로부터 발생한 그녀를 이상한 존재로 바라보는 마을 집단의 시선은 이 지점에서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뀐다. 옹녀를 둘러싸고 있는 청상살(靑孀煞)은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집단적 재난의 원인을 옹녀에게 뒤집어씌움으로써 집단의 안정을 모색하려는 공동체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⁷⁰⁾

옹녀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에서의 다름에서 기인한 집단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부정적 개인으로 타자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후 작품 곳곳에서 옹녀에 대한 서술을 확인해보면, 그녀에게는 결과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이미지와 마을 남성들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한 해에 하나씩 남편을 처치(處置)한 여인이라는 것도 모자라 접촉하는 남성들까지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녀와도 같은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다.⁷¹⁾ 기본적인 원인이 충족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폭력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의 주체들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폭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심리적인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필요하다.

삼십 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姑捨)하고 열다섯 녀은 총각(總角)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處女)가 집을 이니⁷²⁾

위의 제시문을 살펴보면 옹녀가 사는 마을의 삼십 리 안팎에 상투올린 사나이는 고사하고 열다섯 녀은 총각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집을 이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남성 노동력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그러한 점에서 위에서 제시된 남성 노동력의 고갈은 심각한 문제이다.⁷³⁾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의 원인은 모두 옹녀의 탓으로 돌려진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마을 공동체에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70) 강진옥, 앞의 논문, 215면;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 판소리학회, 1998, 329면.

71) 이삼년(二三年)씩 걸러 가며 상부(喪夫)를 할지라도 소문(所聞)이 흉악(凶惡)할 터인데 한 해에 하나씩 전례(前例)로 처치(處置)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동서방(書房), 그남은 간부(間夫), 애부(愛夫),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젖 한 번 진 놈, 눈흘레 한 놈, 손 만져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상척자락 얼른 한 놈까지 대고 결단을 내는데, 한 달에 못을 넘겨, 일 년에 동 반 한 동 일곱 못, 윤삭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설그 질 제, 어떻게 쓸었든지 (<변강쇠가>, 533면)

72) <변강쇠가>, 534면.

73) 최동현, 앞의 논문, 112면.

황·평양도(黃·平兩道) 공론(公論)하되, “이 년을 두었다는 우리 두 도내(道內)에 쫓 단 놈 다시없고, 여인국(女人國) 될 터이니 쫓을 밖에 수가 없다. 양도(兩道)가 합세하여 뺨가(毀家)하여 쫓아내니⁷⁴⁾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폭력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문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 옹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마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에 의해 선택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옹녀를 추방하는 폭력이다. 그런데 폭력의 주체들은 무차별적이며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공론(公論)”이라는 과정을 통해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 후에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옹녀에게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 보다 더 큰 위기 상황, 즉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에서 모든 남성이 죽고 여인국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성인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더 큰 위험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위기로 인식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폭력의 주체인 황해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강쇠가>에 나타나는 폭력의 대표적인 특성이 드러난다. 바로 집단성이다.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하고, 이를 통해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다. 이러한 공론 과정을 통해 폭력의 주체들은 그들의 폭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폭력 행사에 양 도의 사람들이 “합세(合勢)”하여 모두 참여하여, 옹녀의 집을 허물고 그녀를 공동체 경계 밖으로 축출한다. 공론의 과정과 뺨가출향

74) <변강쇠가>, 534면.

이라는 폭력의 수단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폭력의 주체로서 집단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집단의 폭력에 그 대상인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폭력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남성 노동력 고갈의 문제가 옹녀가 살고 있던 한 마을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본문에서는 마을 의 삼십 리 안팎의 남성 노동력 고갈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반해, 옹녀를 추방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고 휘가출송에 참여하는 폭력의 주체는 황해도와 평안도 양도의 사람들이다. 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의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성은 마을 공동체의 남성 노동력 고갈이라는 문제적 상황이 단지 한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에 걸친 문제였다는 점이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 지리적으로 국경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큰 민란이 일어났던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층문학이라는 판소리의 특성상 <변강쇠> 사설이 정착이 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국경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빈번한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 남성의 수가 감소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삼십 리 안팎에 열다섯 넘은 총각도 없어졌다는 표현에서 “열다섯”이라는 나이 역시 16세에서 60세까지의 농민 장정이라는 군역의 나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품에 제시된 남성 노동력 고갈은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문제 상황이라고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옹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황·평양도 두 도의 사람들이 공론하고 추방을 결정하는 부분은, 부정적으로 타자화된 개인에 대한 폭력 행사의 주체로 ‘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때 추방이 결정되는 과정은 집단 구성원 전체의 만장일치적 찬성에 해당하는데,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누구이건, 그들의 생활양식, 직업, 성격, 교양이 비슷하건 비슷하지 않건, 그들이 집단화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집단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평상시의 개인이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는,

다시 말해 동질성이 이질성을 압도하고 무의식적인 특권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다.

옹녀의 추방과정에서 폭력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휘가출송(毀家黜送)은 단순히 한 개인을 공동체 경계 밖으로 쫓아내는 것만은 아니다. 조선시대에 휘가출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금지된 것이 <변강쇠가>에서는 옹녀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폭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성을 홀로 길가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가를 고려한다면, 휘가출송은 한 개인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생명을 내어놓는 잔인한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세계가 19세기의 조선이었으며, <변강쇠가>는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처지를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는 사회 전체나 혹은 유죄로 덮어씌우기가 쉬워 보이는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⁷⁵⁾ <변강쇠가>의 경우에는 옹녀가 사람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다름’이 그녀가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덧씌워진 거짓 이미지이든 그렇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녀의 ‘다름’은 “황·평양도(黃·平兩道)가 합세(合勢)하여 휘가(毀家)”하고 그녀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옹녀는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개가라는 선택에 있어서 일반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존재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방식에 있다. <변강쇠가>에서는 다른 존재인 옹녀에게 성적인 타락과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를 중첩하여 부과함으로써 그녀를 철저하게 타자(他者)로 만들어

75) 르네 지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2012, 28~29면.

버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옹녀를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축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며, 그러한 행위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⁷⁶⁾

주목할 만 한 점은 옹녀의 타자화와 축출의 과정에서 황해도와 평안도로 설정되어 있는 다수와 옹녀라는 한 사람의 대립구도이다. 다수와 한 사람이라는 설정은 이미 대립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다. 그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절대적인 다수는 불가항력적인 대상이다. 게다가 그 한 사람에게 왜곡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당성마저 다수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대치는 자체로 폭력적이다.⁷⁷⁾ 특히 타자화의 결과로 인한 옹녀의 훼가출송(毀家黜送)은 폭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타자로 규정된 것도 모자라 길 위로 쫓아내는 것은 당시 길 위의 여성이 직면하게 되었을 위험을 생각해 보면 매우 잔혹한 대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녀를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타자로 규정된 대상에 대해 공동체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강쇠가>는 단지 하층민을 의미하는 강쇠와 옹녀가 가지고 있는 정착과 안정에 대한 열망이 좌절되는 결말을 통해서 그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체에 의해 타자로 인식되고 축출되는 옹녀의 모습, 그 속에서 다수의 폭력에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며 저항하지 못하는 개인의 무기력함이 <변강쇠가>가 주는 불편함이며, 이러한 불편함이 이 작품이 그 시작부터 내포하고 있는 비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76) 타자로 규정되고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축출되는 것은 변강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변강쇠가>에서 서술자는 “천하(天下)의 잡(雜)놈으로 삼남(三南)에서 빌어먹다 양서(兩西)로 가는” 인물로 강쇠를 소개하고 있다. 옹녀의 경우와 같이 그 축출 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천하의 잡놈”이라는 진술에서 이미 타자로 규정된 강쇠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 역시 “삼남(三南)”에 있는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77) 이러한 다수와 한 사람의 대치에서 비롯되는 폭력성은 후반부에 장승을 훼손한 이유로 전국의 장승들이 온갖 병을 강쇠에게 옮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어허 인심(人心) 흉악(凶惡)하다. 황·평양서(黃·平兩西) 아니며
는 살 데가 없겠느냐. 삼남(三南) 좇은 더 좋다더고.”⁷⁸⁾

길 위로 쫓겨나는 용녀가 공동체를 향한 던지는 마지막 말을 그녀의 음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의 말은 그들과 다른 존재를 철저하게 타자화함으로써 폭력을 가하는 “흉악한” 공동체의 심리에 대한 원망이며, 그로인해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된 무기력한 개인이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의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 강쇠 살해와 폭력

<변강쇠가>의 초반부에 나타난 폭력이 마을 공동체 내부에 있던 존재를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폭력이었다면, 중반부에 나타나는 폭력은 그 종류와 방법에 있어서 보다 심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이러한 폭력이 나타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그날 저녁 일 마치고 한참 곤케 자느라니 천만 뜻밖 온 집 안에 장승이 장을 서서 몸 한 번씩 건드리고 말이 없이 나가거늘 강쇠가 깜짝 놀라 말하자니 안나오고 눈 뜨자니 짝 붙어서 온몸을 결박(結縛)하고 각색(各色)으로 쑤시는데, 제 소견(所見)도 살수 없어 날이 점점 밝아 가매, (중략) 불끈 일어 우뚝 서며, 건장한 두 다리는 유엽전(柳葉箭)을 쏘려는지 비정비팔(非正非八) 빗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왕전(十王殿)에 문지긴지 눈 위에 높이 들고, 경쇠덩이 같은 눈은 홍문연(鴻門宴) 번쾌런지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 풀어 산발하고, 혀

78) <변강쇠가>, 535면.

빼어 길게 물고, 짚동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朱將軍)은 그저 뻗뻗, 목구멍에 숨소리 딸깍, 콧구멍에 찬 바람 왜, 생문방(生門方) 안을 하고 장승 죽음 하였구나. (중략) 팔도 장승 영(令)을 듣고, 사냥 나온 벌떼같이 병 하나씩 등에 지고, 함양 장승 앞을 서서 강쇠에게 달려들어 각기(各己) 자기네 말은 대로 병도배(病塗褓)를 한 연후에 아까같이 흠어진다.⁷⁹⁾

위에서는 전국 팔도에 있는 장승들이 강쇠에게 온갖 병을 도배함으로써 그를 살해하는 폭력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강쇠를 살해하는 폭력의 주체는 전국 팔도의 장승들이다. <변강쇠가>에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장승에 대한 해석은 나약한 천민, 정착민, 지배층 등 여러 가지가 있어왔다. 그러나 장승이 지배계급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장승은 보통 사람들에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즉 장승은 형상이나 행동 방식은 관원을 닮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사람, 즉 향촌 사회의 일반 구성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⁸⁰⁾

옹녀의 추방과정에서 나타난 폭력과 마찬가지로 폭력의 주체가 다수로 구성된 집단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며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옹녀의 경우 황해도와 평안도 양도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였다는 점과 달리, 강쇠의 경우는 전국 팔도의 장승으로 폭력의 주체가 매우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옹녀의 경우에는 집단의 폭력에 의해 대상이 추방되었던 것과 달리, 강쇠에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로 대상이 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이 보다 심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쇠는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이처럼 그 주체와 방법에 있어서 심화된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방된 옹녀와 강쇠가 만나는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9) <변강쇠가>, 561면.

80) 최동현, 앞의 논문, 118~119면.

이 때에 변강쇠라 하는 놈이 천하의 잡놈으로 삼남에서 벌어먹다 양서(兩西)로 가르라고, 연놈이 오다 가다 청석골 좁은 길에 돌이 서로 만났거든, 간악한 계집년이 할곳 보고 지나가니 의뭉한 강쇠놈이 다정히 말을 물어, “여보시오, 저 마누라, 어디로 가시나요.” 숯계집 같거든 편잔을 하든지 못 들은 체 가련마는, 이 자지간나희가 훌림 목 곱게 써서 “삼남으로 가오.”⁸¹⁾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강쇠와 웅녀는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청석골에서 만난다. 그들의 만남 장면에서 웅녀는 “간악한 계집년”, 노련하게 노는 계집을 의미하는 “자지간나희”로, 강쇠는 “천하의 잡놈”, 그리고 “의뭉한 강쇠놈”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미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타자화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이 경우에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품의 초반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웅녀나 강쇠가 공동체의 경계 내에 있던 처음에는 그저 공동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축출된 이후로는 두 사람에 대해 서술자의 시선이 보다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며, 이를 통해 타자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웅녀에게 가해진 폭력보다 강쇠의 폭력이 심화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폭력의 대상의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웅녀와 강쇠 모두 공동체에 위기를 초래하여 문제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웅녀에게 폭력이 가해졌을 때 웅녀의 위치가 공동체의 경계 내부였다는 점과 달리, 강쇠는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경계 외부의 인물이다. 집단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가 공동체가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동체의 안정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물이 경계 안의 인물이 아니라 이미 축출된 경계 밖의 인물이라면 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심화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81) <변강쇠가>, 535면.

안정을 도모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경계 밖의 인물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안정된 질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 타자들이다.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다. “천하의 잡놈”, “의묘한 강쇠놈”과 같이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표현은 이러한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공동체가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시대에도 경계 밖의 인물들을 향한 공동체 내부의 불안한 시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이다. 그 때 경계 밖의 인물들은 단지 불안한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화된 집단적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옹녀와 강쇠의 결합 후에 시작된 그들의 ‘도방 살림’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애쓰는 옹녀와는 달리 매일같이 계속되는 강쇠의 무위도식 때문이었다. 세상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없게 된 강쇠와 옹녀는 결국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옹녀의 축출 이후에 그들이 산중으로 들어가기까지 <변강쇠가>의 전반부를 통해서 그들에게 시작된 타자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결합 과정에서는 앞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비극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끝나지 않은 타자화가 가져올 비극적인 결말이 암시되고 있으며, 타자화된 존재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과 잔혹성은 작품의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구체화 되고 심화되고 있다.

사면(四面)을 둘러보니 동구마천 가는 길에 어떠한 장승 하나 산중에 서 있거늘 강쇠가 반겨하여, ‘벌목정정(伐木丁丁) 애 안쓰고 좋은 나무 거기 있다. 일모도궁(日暮途窮) 이내 신세, 불로이득(不勞而得) 좋을씨고.’ 지계를 찾아지고 장승 선데 급히 가니 …… (중략) 달려들어 불끈 안고 엇두름 쑥 빼내어 지계 위에 짊어지고 유대군(留待軍) 소리 하며 제 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며, 호기(豪氣)를 장히 핀다. “집안사람 거기 있나. 장작 나무 하여 왔네.”⁸²⁾

82) <변강쇠가>, 551면.

산중생활이 시작된 이래로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며”⁸³⁾ 무위도식하던 강쇠는 옹녀의 성화에 못 이겨 나무를 하러 갔다가 장승을 뽑아 집으로 돌아온다.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⁸⁴⁾이라는 옹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쇠는 결국 장승을 패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만다. 당시 사회에서 장승은 촌락 공동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정표와 벽사(辟邪)의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였다.⁸⁵⁾ 공동체 내에서는 결코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할 신성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장승이 땔감으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이미 그 다름으로 인해 타자화되어 경계 밖으로 축출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에게 심각한 위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어떠한 종류든지 간에 공동체가 대응해야만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장승 혼령(魂靈) 급히 가서 두 군데 전갈하니 공원 유사 급히 와서 의례(依例) 인사한 연후에 함양 장승 발괄 내력(來歷) 대방이 발론(發論)하니 공원 유사 여짜오되, “우리 장승 생긴 후로 처음 난 변괴(變怪)오니 삼소임(三所任)만 모여 앉아 종용작처(從容酌處) 못 할지라, 팔도 동관 다 청하여 공론 처치(處置)하옵시다.”⁸⁶⁾

강쇠에 의해 땔감으로 사용되는 봉변을 당한 장승 혼령의 발고(發告)로 전국에 있는 장승들이 신속하게 모이고, 강쇠에 대한 징치 방법이 결정된다. 옹녀의 추방에서 나타난 폭력의 작동 과정과 마찬가지로, 강쇠의 경우에도 폭력의 주체들은 즉각적이며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팔도에 있는 장승들을 다 모아 ‘공론(公論)’의 과정을 통해 폭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장승 하나를 패서 땔감으로 사용한 강쇠를 징

83) <변강쇠가>, 543~545면.

84) <변강쇠가>, 553면.

85) 박일용, 앞의 논문, 187면.

86) <변강쇠가>, 555면.

치하지 않는다면, 그 근처 장승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화가 미치지 않을 데가 없다는 장승 집단의 위기감은 강쇠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용녀의 추방을 결정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합리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성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장승들은 오로지 공동체의 안정을 무너뜨리는 해로운 존재로 간주되는 부정적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그 폭력의 행사 방법을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일제히 절을 하고, 문안을 한 연후에 대방이 발론하여, “통문사의(通文事意) 보았으면 모은 뜻을 알 터이니 변강쇠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꼬.” 단천(端川) 마천령(摩天嶺) 상봉(上峯)에 섰는 장승 나와서 여짜오되, “그 놈의 식구(食口)대로 새남터로 잡아다가 효수(梟首)를 하옵시다.” (중략) 강쇠라 하는 놈도 부지불각(不知不覺) 효수(梟首)하면 세상이 알 수 없어 징일려백(懲一勵百) 못 될 터니 여러 동관님네 다시 생각하옵소서.” 압록강가 섰는 장승 나서며 여짜오되, “출호이자(出乎爾者) 반호이(半乎爾)가 성인(聖人)의 말씀이니 우리의 식구대로 그 놈 집을 에워싸고 불을 버섯 지른 후에 못 나오게 하였으면 그 놈도 동관같이 화장이 되오리다.” 대방이 대답하되, “흉악한 그런 놈을 부지불각 불지르면 제 죄를 제 모르고 도깨비 장난인가 명화적(明火賊)의 난리런가 의심을 할 터이니 다시 생각하여 보오.” 해남 관머리 장승이 여짜오되, “대방님 하는 분부 절절(節節)이 마땅하오. 그러한 흉한 놈을 쉽사리 죽여서는 부끄러움을 씻지 못 할 터니 고생을 실컷 시켜, 죽자 해도 썩 못 죽고, 살자해도 살 수 없어 칠칠이 사십구 한 달 열 아흐레 밤낮으로 보깨다가 험사(險死) 악사(惡死)하게 하면 장승 화장한 죄인 줄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꽤히 징계(懲戒) 될 터이니, 우리의 식구대로 병(病) 하나씩 가지고서 강쇠를 찾아 가서 신문(函文)에서 발톱까지 오장육부(五臟六腑) 안팎 할 것 없이 새 집에 양토(仰土)하듯, 지소방(紙所房)에 부벽(付壁)하듯, 각장(角壯) 장판(壯版) 기름 걸 듯, 왜관(倭館) 목물(木物) 칠살같이 겹겹이 발랐으면 그 수가 좋을 듯하오.” 대방이 매우 기뻐하여, “남해 동관 하는 말씀 불변불요(不煩不擾) 장히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쇠놈에 저리 많은 식구들이 정처없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축이 들고 빠진 데는 틈 날 터니 머리에

서 두 팔까지 전라, 경상 차지하고, 겨드랑서 불기까지 황해, 평안 차지하고, 항문에서 두발까지 강원, 함경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복(內腹)일랑 경기, 충청 차지하여, 팔만 사천 털구멍 한 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발 바르라.”⁸⁷⁾

주목을 요하는 점은 변강쇠에 대한 폭력의 방법을 결정하는 공론의 과정이 옹녀의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장승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강쇠를 징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발연한다. 처음에는 강쇠의 식구를 잡아다가 새남터에서 효수(梟首)하는 방법이 제시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머리를 잘라 살해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이 알 수 없어 징일려백(懲一勵百)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지 그 목숨을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강쇠라는 인물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폭력의 주체인 집단이 얼마나 이 폭력의 행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시된 화형도 폭력의 방법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모든 장승이 강쇠의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지른 후에 못나오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화형의 방법으로는 강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장난이나 화적의 난리 정도로 의심하는데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강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으며 순식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폭력의 방법으로 병 도배의 방법이 선택된다. 전국 팔도의 모든 장승들이 병 하나씩을 가지고 강쇠를 찾아가서 빈틈없이 온 몸에 도배하여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결정된 것이다.

이처럼 장승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강쇠의 징치 방법을 발연하고 결정하는 대목은 집단적 폭력이 발생할 때, 상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 특징인가를 보여준다. 폭력의 주체인 장승 집단은 자신들에게 허용될 수 있

87) <변강쇠가>, 557~559면.

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마치 경쟁하듯 털어놓는다. 강쇠라는 한 인물에게 많은 장승이 달려들면 혹시나 틈이 생길까 하여 강쇠의 몸을 살뜰하게 나누어 한 곳도 빠짐없이 병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공론하는 부분은 그 구체성에 있어서 매우 잔혹하게 느껴지까지 한다. 이러한 공론 과정을 통해 서로가 동반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위 인용문에서와 같이 강쇠의 몸에 온갖 병을 ‘도배’하는 것이다. 벽사의 존재로 인간에게 오는 전염병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장승이 병으로 강쇠를 징치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승들의 징치는 강쇠가 공동체로부터 타자로 규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들에게 강쇠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쇠를 징치하는 전국의 장승들이 나름의 위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만의 내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전 옹녀의 축출과정에서 옹녀라는 개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존재는 단순한 마을 공동체, 즉 그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쇠의 경우에는 그 대립관계에 있는 존재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된 다수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쇠와 옹녀에 대한 타자화의 정도가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축출된 이후에 보다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변강쇠가>의 전반부에서는 강쇠와 옹녀에 대해 더욱 악화된 평가를 통해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었다면, 강쇠가 장승들에 의해 징치되고 있는 중반부의 타자화와 그에 따른 폭력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옹녀의 축출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는 다수와 개인의 대립이라는 설정은 강쇠의 죽음 과정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설정은 그 자체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강쇠의 경우 함경도와 평안도의 사람들이 아닌 전국 단위의 장승들이 그 다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이전 보다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타자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공동체 밖으로 축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만, 중반부의 경우는 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과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의 수와 폭력 행사의 정도뿐만 아니라 폭력 행사의 절차와 장면에 대한 묘사가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전반부에서 이미 그 모습을 드러낸 타자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 작품의 중반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폭력의 정도와 잔혹성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번 타자로 규정된 것들과 결코 화합하지 않으며 만약 타자가 조금이라도 위협으로 인식된다면 철저히 대응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폭력적이다. 그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옹녀나 강쇠와 같이 타자로 규정된 개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잔혹하다. 특히 일차적인 폭력의 결과로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그들에게 폭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폭력이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은 <변강쇠가>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시체 처리와 폭력

강쇠가 장승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변강쇠가>의 후반부가 이어진다.⁸⁸⁾ 그런데 <변강쇠가>의 후반부는 폭력의 결과로 인해 발

88) <변강쇠가>를 둘러싼 주된 쟁점 중 하나로 작품의 서사구조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변강쇠가>의 구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유기적인 단일 구조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에 서 있는 논자로는 서종문과 박경신이 대표적이다. 서종문은 강쇠의 죽음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주로 유랑민의 생활상을, 후반부는 유랑민의 유랑상을 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경신은 전반부는 부락 공동체 무속제의의 절차인 장승신화를, 후반부는 전반부의 장승신화에 덧붙여진 뒷전(뒷이야기)으로 놀이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경신은 작품의 주제는 덧붙여진 후반부가 아닌 전반부를 통해서만 파악되어야하며, 이는 철저히 부정적인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절대적 우위성의 확인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황인환, 박진태, 정

생해야하는 일반적인 상황이 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살해(殺害)는 살아있는 육체에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다. 그 결과로 시체는 더 이상 말없이 누워있고 생존자들은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변강쇠가>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무런 말없이 누워있어야 할 강쇠의 시체는 다음과 같이 곳곳이 서 있는 것이다.

속곳 아구대에 손김을 풀썩 넣어 여인(女人)의 보지 쥐고 으드득 힘 주더니 불끈 일어 우뚝 서며, 건장(健壯)한 두 다리는 유엽전(柳葉箭)을 쏘려는지 비정비팔(非正非八) 빗디디고, 바위 같은 두 주먹은 시왕전(十王殿)에 문(門)지긴지 누 위에 높이 들고, 경(磬)쇠덩이 같은 눈은 홍문연(鴻門宴) 번쾌(樊噲)런지 찢어지게 부릅뜨고, 상투 풀어 산발(散髮)하고, 혀 빼어 길게 물고, 짚동같이 부은 몸에 피고름이 낭자(狼藉)하고, 주장군(朱將軍)은 그저 뻗뻗, 목구멍에 숨소리 딸깍, 콧구멍에 찬 바람 왜, 생문방(生門方) 안을 하고 장승 죽음 하였구나.⁸⁹⁾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쇠의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과 그 시체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치 장승의 모습과도 같은 강쇠의 시체에 대한 선행연구의 해석은 주로 강쇠가 경계 안에 위치한 집단의 이념과 가

인혁, 임수현 등은 <변강쇠가>의 구조를 일관된 구조로 보았다. 본고는 <변강쇠가>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성격이 다르다는 박경신의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변강쇠가>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논의하는 가운데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가 밝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강쇠의 죽음의 결과, 즉 폭력의 결과물로서의 일상적이지 않은 시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서종문, 「변강쇠와 유랑민의 삶」, 『판소리 사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6, 317면.

박경신, 앞의 논문, 24~25면.

황인환, 「<변강쇠가>의 줄거리체계와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作中機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진태, 「금기설화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의 구조」,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9.

정인혁, 「변강쇠가의 구조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임수현, 「<변강쇠가>의 서사구조 고찰」,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89) <변강쇠가>, 571면.

치에 경도(傾倒)되었다는 식으로 진행되었다.⁹⁰⁾ 강쇠가 장승 집단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자신이 저항했던 바로 그 장승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다.⁹¹⁾ 이로 인해 강쇠가 죽기 전 옹녀에게 남기는 강요와 저주는 열녀(烈女)를 요구하는 당대 이념의 폭력이 죽은 강쇠를 통해 재현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⁹²⁾ 죽은 강쇠는 강쇠가 아니라 향촌사회를 지키는 장승이 되어 향촌사회의 윤리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본보기가 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⁹³⁾

그러나 강쇠의 경우 장승 죽음 이전에는 집단의 규범과 질서 안으로 포용될 수 없는 불온(不穩)함으로 인해 이미 경계 밖으로 쫓겨난 타자였고, 게다가 장승 파괴라는 금기 위반을 통해 경계 내부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했던 존재였다. 이처럼 문제시되는 타자가 죽음 이후에 향촌사회라는 집단의 윤리와 이념을 대변(代辨)하는 존재로 치환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⁹⁴⁾ 뿐만 아니라 죽은 강쇠를 치상(治喪)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옮기던 인물들이 마을 근처 원두(園頭)밭 머리에서 땅에 붙고, 나중에는 양반과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한 데 뒤엉켜 붙어버리는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경계 밖으로 쫓겨난 인물이 경계 안에 있는 집단의 혼란을 야기한 셈인데, 이 역시 강쇠가 죽음 이후에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설명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장승 죽음”이라는 용어에 치우치기보다 곳곳하게 서 있는 시체의 형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강쇠가 살해될 때 육체에 병이 스미고 문드러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제시됨으로써 공동체의 규범이 개인에게 저

90) 정병헌, 앞의 논문, 1986, 188면.

91) 최혜진, 앞의 논문, 1998, 392면; 정지영, 「변강쇠전 -조선후기 성 통제와 하층여성의 삶」, 『역사비평』 65, 역사비평사, 2003, 364면.

92) 정환국, 「‘楚玉’과 ‘옹녀’ -19세기 비극적 자아의 초상」,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232면.

93) 최동현, 앞의 논문, 2016, 122면.

94) 이는 <변강쇠가>에서 강쇠를 바라보는 경계 내부에 위치한 집단이 보여주는 시선(視線)의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없다. <변강쇠가>에서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옹녀와 강쇠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관된 시선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견지(堅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르는 폭력의 실상이 폭로되었던 것과 같이,⁹⁵⁾ 집단적 폭력의 결과물로서 서 있는 강쇠의 시체는 그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쇠는 장승이 만들어놓은 질서체계에 의해 파멸되었지만 장승의 질서체계에 끝내 굴복하지 않았으며,⁹⁶⁾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승의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적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살해당한 강쇠의 시체는 집단적 폭력의 실상을 폭로라도 하듯 곳곳이 서 있으며, 작품의 후반부는 이러한 강쇠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변강쇠가>에서 강쇠의 치상(治喪)이 지연되는 것은 곳곳이 서 있는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쇠의 시체는 어쩌서 장승처럼 곳곳이 서 있는 것일까? <변강쇠가>에서는 이를 “원혼(冤魂)” 때문이라고 말한다. 강쇠를 치상하는 과정에서 시체들이 마을 근처 땅에 붙고, 양반과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한데 뒹어져 붙어버린 이후에 이 신기한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⁹⁷⁾ 강쇠를 치상하는 과정에서 옹녀에게 모종의 성적(性的) 보상을 바라고 접근했던 7명의 인물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강쇠가 옹녀에게 내린 저주가 현실화되고, 이후에 시체가 땅에 붙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붙어버리는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쇠의 원혼(冤魂)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⁹⁸⁾

95) 최경환, 「<변강쇠가>연구 -선택과 배치의 담화전략-」, 『語文學論叢』 개교 60주년기념 특별호,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238면; 이정원, 「<변강쇠가>의 성 담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118면.

96) 전신재, 「「변강쇠가」의 비극성」, 『先淸語文』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110면.

97) 여러 사람들이 호도(胡桃)엿 사 먹으며 하는 말이, “이것이 원혼(冤魂)이라, 삼현(三絃)을 길게 치고 냇두리를 하였으면 귀신(鬼神)이 감동(感動)하여 응당(應當) 떨어질 듯하다.” (<변강쇠가>, 613면)

98) 이정원은 이와 관련해 “변강쇠의 저주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그의 원한에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정원, 앞의 논문, 478면.

강쇠의 시체가 마을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까닭을 그의 원혼으로 보았을 때, 문제는 그 원통한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⁹⁹⁾ 시체를 짊어진 사람들이 땅에 붙고, 마치 전염이라도 되듯이 움생원과 사당패, 웅좌수마저 시체에 붙어 난장판이 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른 계대(繼隊)패들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원통하게 죽은 혼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한다.¹⁰⁰⁾ 뿐만 아니라 땀득이는 웅녀와 백년해로 하고자 했던 강쇠가 하루아침에 죽음으로써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눈을 감지 못하는 원한을 가진 장승 송장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⁰¹⁾ 이처럼 <변강쇠가> 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들을 통해 강쇠의 죽음 이후에 원혼이 생겨난 원인이 증언되고 있는데, 그 중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계대패와 땀득이의 발언에서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죽음”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강쇠를 살해한 장승 집단의 징치가 정당하지만은 않으며 그로 인해 강쇠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⁰²⁾ 본고에서는 앞서 강쇠의 죽음에 대해 공동체 경계 밖으로 쫓겨난 불온한 존재인 강쇠가 장승을 뺏아 장작으로 사용하는 금기를 위반한 결과,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장승 집단의 공론을 통해 결정된 집단적 살해로 파악한 바 있다. 살아있는 육체에게 가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은 살해이다. 강쇠의 살해는 집단 對 개인이라는 구조,

99) 김종철은 작품 내에서는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죽음으로 보고 있으나, 강쇠가 원혼이 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를 작품 내에서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원통한 것으로 여겨지는 강쇠의 죽음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임에 주목했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강쇠의 죽음은 단순히 금기를 위반한 존재에게 가해지는 징치를 넘어서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앞의 논문, 288면.

100) “지하(地下)에 맨 데 없고, 인간(人間)에 주인(主人) 없어 원통(冤痛)히 죽은 혼(魂)이 신체(身體) 지켜 있는 것을 무지(無知)한 인생(人生)들이 경대(敬待)할 줄 모르고서 손으로 만져 보고 걸터앉기 꽤썸쿠나.” (<변강쇠가>, 615면)

101) “천고(千古)의 의기남자(義氣男子) 원통(冤痛)히 죽은 혼(魂)이 지기(知己)지우(知己之友) 못 만나면 위로(慰勞)할 이 뉘 있으리 ……(중략) 꽃 같은 저 미인(美人)과 백년(百年)을 살 쟈더니 이슬 같은 이 목숨이 일조(一朝)에 돌아가니 원통(冤痛)하고 분(憤)한 마음, 눈을 감을 수가 없어, 뻗뻗한 장승 송장.” (<변강쇠가>, 615~617면)

102) 신희림, 「<변강쇠가>에 나타난 욕망과 규범 사이의 긴장과 그 처리방식」, 『판소리연구』 제45집, 판소리학회, 2018, 282면.

즉 오로지 집단의 결정에 의해 폭력이 행사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은 그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순식간에 발생했다. 심지어 이 살해는 폭력의 대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알아야하기에 병도배(病塗襟)라는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강쇠의 죽음이 원통한 것이라는 인식은 단지 옹녀와 같은 꽃 같은 미인과 살고자 하는 강쇠의 욕망이 좌절된 데서 기인한 것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욕망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집단적 폭력의 당위나 명분이 그 폭력의 방법이나 정도, 그리고 구조에서 비롯되는 잔혹성을 상쇄할 만큼의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놓여있는 것이다.

요컨대, <변강쇠가>의 후반부에서 치상과정이 지연되는 까닭은 치상의 대상이 되는 문제적 시체가 원혼(冤魂)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혼은 작품 내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를 통해 증언되었듯이 강쇠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때 강쇠의 죽음은 병도배로 인한 살해라는 집단적 폭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폭력 행사의 명분이나 당위에 비해 폭력의 방법이나 정도, 그리고 구조에서 확인되는 잔혹함이 큰 데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이라는 인식이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³⁾ 결과적으로 <변강쇠가>의 후반부에서 곳곳이 서 있는 시체와 그 시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은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도를 넘은 부당한 폭력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강쇠의 원망이나 적대감은 자신에게 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한 집단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강쇠는 죽음 직전

103) 강쇠의 죽음과 관련해서 부정적 개인에게 가해진 집단적 폭력의 명분이나 당위가 그 폭력의 잔혹성을 상쇄할 정도로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인식이 <변강쇠가>의 대표적인 서술의식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변강쇠가>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작품의 초반부터 끝까지 옹녀와 강쇠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경계 안으로의 포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강쇠의 죽음을 원통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시체에 붙어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계대(繼隊)패들과 여전히 자신들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시체들을 달래고자 했던 엽득이의 목소리뿐이다.

에 옹녀에게 저주를 내리고, 강쇠를 치상하려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의 원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강쇠가 이제는 폭력의 주체가 되어 옹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여기서 폭력이 행사되는 방향과 그 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옹녀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무리 살자 하되 내 병세(病勢) 지독(至毒)하여 기어(期於)히 죽을 테니 이 몸이 죽거들랑 염습(殮襲)하되, 입관(入棺)하기 자네가 손수 하고, 출상(出喪)할 제 상여(喪輿) 배행(陪行), 시묘(侍墓) 살아 조석(朝夕) 상식(上食) 삼년상(三年喪)을 지낸 후(後)에 비단(緋緞) 수건(手巾) 목을 졸라 저승으로 찾아 오면 이생(生)에 미진연분(未盡緣分) 단 현부속(斷絃復續)되려니와, 내가 지금(只今) 죽은 후(後)에 사나이라 명색(名色)하고 십세전(十歲前) 아이라도 자네 몸에 손 대거나, 집 근처(近處)에 얼른하면 즉각(卽刻) 급살(急殺)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리하소.”¹⁰⁴⁾

장승들의 징치로 인한 지독한 병세를 견디지 못해 죽기 직전, 강쇠는 옹녀에게 자신이 죽은 이후에 삼년상을 지내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자신을 따라 죽을 것을 요구한다. 자신과 함께 살았던 옹녀에게 목숨으로 정절(貞節)을 지킬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옹녀가 그를 따라 죽기까지 노소(老小)를 불문하고 접근하는 남성들은 바로 죽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린다.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친 옹녀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죽음 직전 강쇠가 남긴 열녀가 되라는 강제적인 요구와 저주는 분명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옹녀에 대한 강쇠의 가정 폭력이 행사되는 방향이다. 강쇠의 유언에는 자신을 살해한 장승 집단에 대한 일체의 원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집단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을 엉뚱하게도 옹녀에 대

104) <변강쇠가>, 569~571면.

한 열녀 요구로 치환하고 있다.¹⁰⁵⁾ 장승 집단에 의해 강쇠를 향해 행사되었던 집단적 폭력은 그 방향과 모습을 바꿔 옹녀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강쇠의 폭력은 옹녀에게 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강쇠의 죽음 이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 역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치상만 해주면 같이 살겠다는 옹녀의 유혹에 넘어가 나섰다가 죽임을 당한다. 먼저 중(산나비)은 옹녀를 따라와서 염불을 하다가 강쇠의 시체를 보자마자 죽고,¹⁰⁶⁾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에 험악하게 죽었던 송장들을 다 쳤다며 자신 있어 하던 초라니도 고사(告祀)소리를 하다가 죽고 만다.¹⁰⁷⁾ 이후에 등장한 풍각쟁이패 다섯 명(가객, 통소장이, 검무장이, 가얏고 놀던 사람, 북 치던 늙은 총각) 역시 음악을 통해 강쇠의 원혼을 달래고 시체를 처리하고자 했으나 시체를 보고 모두 죽임을 당한다.¹⁰⁸⁾ 이들은 강쇠와 옹녀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층에 속해있으며 길 위의 인물들로써,¹⁰⁹⁾ 경계 안의 안정된 삶에 발붙이지 못하고 경계 밖에서 표류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문제는 죽음 직전 옹녀에게 가해졌던 폭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죽음에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폭력이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살해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재들로 폭력의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05) 최동현, 앞의 논문, 122면.

106) 속으로 진언(眞言)치며 방문(房門) 열고 들어서서 송장을 열른 보고 고개를 푹 숙이며 중의 버릇 하노라고 두 손을 합장(合掌)하고, 문안(問安)죽음으로 요만하고 열반(涅槃)했제. (<변강쇠가>, 579면)

107) “신사년(辛巳年) 괴질(怪疾) 통에 험악(險惡)하게 죽은 송장 내 손으로 다 쳤으니, 그 같은 선 송장은 외손의 아들이니 샅을 먼저 결단(決斷)하오. 폐. 당 동 당.” ……(중략) 풀잎 같은 새된 목이 고비 넘길 수가 없고, 날쌔게 놀던 몸집 삼동이 뒤틀리고, 한출침배(汗出沾背) 가쁜 숨이 어깨춤에 턱을 채여, 한 다리는 오곰 죽여 턱 밑에 장고(長鼓) 얹고, 망종(亡終) 쓰는 한 마디 목 하염없이 구성이라. 뒤마치 꿈치며 고사(告祀) 죽음 돌아가니 (<변강쇠가>, 583~585면)

108) 방(房)에서 찬 바람이 스르르 일어나며 쌍창문(雙窓門)이 절로 열려 온몸이 으쓱하며 독(毒)한 내가 코 찌르니, 눈뜬 식구들은 송장을 먼저 보고 제 맛으로 다 죽는다. (<변강쇠가>, 591면)

109) 김선현, 앞의 논문, 18면.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의 방향, 다시 말해 강쇠의 죽음을 전후로 이처럼 옹녀나 다른 유랑민들을 향하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¹¹⁰⁾ 먼저 강쇠와의 만남 이후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꾀와 매음까지 감당해야 했던 옹녀의 고달픈 삶과는 달리, 강쇠는 게으르고 도박을 일삼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다.¹¹¹⁾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쇠와 옹녀의 관계에서 옹녀의 위치이다. 옹녀는 강쇠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강쇠보다 힘이 약한 존재이다. 둘 다 경계 밖으로 내몰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인물의 관계에서 옹녀는 늘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강쇠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존재가 옹녀인 것이다. 따라서 강쇠가 집단으로부터 당한 폭력이 강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열녀 요구와 저주로 치환되어 옹녀에게로 전이되었던 까닭은 보통 낮은 곳으로 흐르는 폭력의 연쇄라는 측면에서 가학(加虐)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¹¹²⁾

110) 최동현은 이에 대해 강쇠의 유언은 강쇠의 말이 아니라, 강쇠의 입을 통하여 표현된 향촌사회의 요구로 파악한 바 있다. 유언의 형식적 주체가 아니라 유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 관점을 옮겨서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 행사를 설명하고자 했다. 향촌사회가 강쇠의 죽음을 자신들의 윤리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기 위한 본보기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촌사회의 요구가 투사된 대상으로서의 강쇠 시체는 향촌사회를 대리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유랑민들에게 별을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최동현, 앞의 논문, 122~123면) 옹녀를 향한 강쇠의 유언과 하층 유랑민들의 죽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을 읽어내고 있는 점에서 본고는 최동현과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그렇기는 하나 이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은 같지 않다. 본고에서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 놓여 있는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행사되는 폭력의 일반 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1) 연놈이 손목 잡고, 도방 각처(各處) 다닐 적에 일(一) 원산(元山), 이(二) 강경(江景)이, 삼(三) 법성(法聖)이 곳곳이 찾아 다녀, 계집년은 애를 써서 들병장사, 막장사며, 낮부림, 녀장질어 돈냥 돈관 모아 놓으면, 강쇠놈이 허망(虛妄)하여 댕 냥내기, 방패리기, 두냥 패에 가보하기, 갑자꼬리 여수(與受)하기, 미골(尾骨)회패 되기질, 호홍호백(呼紅呼白) 쌍륙(雙六)치기, 장군 명군 장기(將棋)두기, 맞춰먹기 돈치기와 불러먹기 주먹질……(중략) 그 중에 무슨 비위(脾胃)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으로 싸움이니 암만해도 살 수 없다. (<변강쇠가>, 541~543면)

112) 박희병은 장애인을 소재로 한 시가 중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곰보의 얽은 얼굴을 희화화하고 있는 <곰보타령>에 주목했다. 특히 곰보의 사회적 신분이 중이라는 사실로부터, ‘병신’과 사회적 약자를 결부시켜 가학(加虐)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가학은 보통 가학자에 가까이 있으며, 가학자보다 힘이 약하고, 가학자 바로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 행해진다는 가학의 일반원리를 포착했다. 본고가 <변강쇠가>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폭력의 방향 전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선행 연구의 성과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크다.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고전문학연구』 24권, 한국고전문학회, 2003.

옹녀가 집단에 의해 살해당한 강쇠에 가장 가까우면서 힘이 약한 존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쇠를 치상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중과 초라니, 풍각쟁이패 역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에 해당된다. 옹녀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을 급살(急殺)할 것이라는 강쇠의 저주가 현실화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존재들을 향해 폭력은 그 방향을 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자신을 살해한 집단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하거나 못한 처지를 가진 ‘만만한 존재’들에게 강쇠의 폭력이 전이되는 것을 통해 어김없이 관철되는 폭력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뎡득이가 등장하여 떡메로 강쇠의 시신을 넘어뜨리고 각설이패 세 사람과 함께 여덟 구의 시체들을 옮기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람당 두 구의 시체를 등에 지고 이동하는 도중에 잠깐 쉬려고 앉았다가 시신과 함께 땅에 붙어버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¹¹³⁾ 옹녀가 죽은 강쇠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전염이라도 되듯이 움생원과 사당패, 그리고 웅좌수마저 시체에 붙어버리고 만다. 이 때 시체가 붙고 시체에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붙어버리는 장소는 움생원의 원두밭으로,¹¹⁴⁾ 강쇠와 옹녀가 살던 경계 밖이 아니라 마을 근처에 해당되는 공간이다. 경계 밖에 있던 시체들이 상을 치르기 위해 경계 안을 지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 있던 사당(寺黨)들이 깜짝 놀라 일어서니 모두 다 붙었구나.
요망(妖妄)한 이것들이 각색(各色)으로 재변(才辯) 떨 제 애고애고 우

323면 참조.

113) 한참을 지고 가니 무겁기도 하거니와 길가에 있는 언덕 설 자리 매우 좋아. 네 놈이 함께 쉬어 짐머리 서로 대어 일자(一字)로 부리고 어깨를 빼려 하니 그만 땅하고 송장하고 짐꾼하고 삼물조합(三物 조합) 짝 되어서 다시 변통(變通) 없었구나. (<변강쇠가>, 601면)

114) 여인(女人)을 보낸 후(後)에 각기(各己) 설움 의논(議論)할 제 이것들 앓은 데가 원두(園頭)밭 머리로서 참외 한참 산영하니 막(幕)은 아직 아니 짓고 밭 임자 움생원(生員)이 집에서 잠을 자고 밭 보려 일찍 올 제 (<변강쇠가>, 605면)

는 년, 먼산(山) 보고 기막힌 년, 움생원(生員) 바라보며 더럭더럭 욱
(辱)하는 년, 제 화에 제 머리를 으득으득 뜯는 년, 살풍경(殺風景) 일
어나니¹¹⁵⁾

앞의 인용문에서 자신들이 시체에 붙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에 사당패가 보여주는 반응을 살펴보자. 울기, 기가 막혀 먼 산 바라보기, 욱하기, 그리고 화를 못 이겨 자신의 머리를 뜯는 모습에서 시체에 붙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확인된다. 특히 “살풍경(殺風景)”이라는 말은 그들이 직면한 공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움직임이 통제된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제하는 존재가 시체들이라는 사실은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이 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여덟 구의 시체들이고, 시체에 붙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덟 구의 시체들 모두 경계 밖의 존재들로서 나름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¹¹⁶⁾ 이 장면에서는 경계 밖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로부터 경계 안의 존재들에게 향하는 폭력을 읽어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강쇠의 시체는 병도배로 인한 살해라는 집단적 폭력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 폭력 행사의 명분이나 당위가 폭력의 잔혹함을 설득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혼(冤魂)이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후에 강쇠의 원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곱 구의 시체들은 가학의 일반원리에 의해 강쇠에게 가해진 집단의 폭력이 만만한 존재들에게 전이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본다면 강쇠를 비롯한 총 여덟 구의 시체가 발생한 바탕에는 과도하게 행사된 집단의 폭력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변강쇠가>의 후반부에서 곳곳이 서 있는 강쇠의 시체와 그 시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이 부당한 집단적 폭력을 폭로하고 있다고 보

115) <변강쇠가>, 611면.

116) “한날 한시(時) 못태 송장 여덟 송장 각기(各己) 설움 다 원통(冤痛)한 송장이라.” (<변강쇠가>, 617면)

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계 안의 집단에게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해결해야하는 문제 상황에 해당된다.

시체에 붙어버린 사람들과 이들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까지 합세하면서 그 일대는 마치 난장(亂場)과도 같이 된다.¹¹⁷⁾ 앞서 설명했듯이 경계 안의 인물들이 처한 폭력적 상황의 원인이 “원혼(冤魂)”으로 밝혀진 이후에야 비로소 곳을 통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를 찾게 된다.¹¹⁸⁾ 계대패들이 곳을 통해 원통한 죽음을 당한 여덟 구의 시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대(敬待)하지 못한 움생원을 비롯한 사당패와 옹좌수를 책망하고, 이들의 무지를 대신 사죄함으로써 시체들을 진 뎀득이와 각설이패를 제외하고 시체에 붙은 사람들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이다.¹¹⁹⁾ 앞에서 곳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실마리라고 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은 시체들로 인해 발생한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뎀득이와 각설이패는 강쇠를 비롯한 여덟 구의 시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체들과 시체를 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을 근처에 붙어 있다는 사실은, 곳을 통해 원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시체를 함부로 대한 것을 사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마을 사람들은 시체에서 떨어졌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흩어졌지만,¹²⁰⁾ 시체들의 원혼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뎀득이는 시체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이 당한 죽음이 원통한 것임을 인정해준다. 여기서 뎀득이의 목소리는 문제 해결의 두 번째 실마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7)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곳 보노라 아니 가고, 먼뎃 마을, 근처(近處) 마을 구경(求景)하자 모여드니 그리 저리 모인 사람 전주장(全州場)이 푼푼하다. (<변강쇠가>, 613면)

118) 최혜진, 앞의 논문, 1998, 403면.

119) “인간(人間)에 주인 없어 원통(冤痛)히 죽은 혼(魂)이 신체(身體)를 지켜 있는 것을 무지(無知)한 인생(人生)들이 경대(敬待)할 줄 모르고서 손으로 만져 보고 걸터앉기 꽤 씹구나. ……(중략) 비읍네다 여덟 혼령(魂靈), 무지(無知)한 저 인생(人生)들 허물도 과(過)도 말고, 갓은 배반(杯盤) 진사면(陳謝免)에 계대(繼帶)춤에 놓고 가세. 어라 만수(萬壽) 저라 만수(萬壽).” 우두커니 짐꾼 넷만 남겨 놓고 위에 붙은 사람들은 모두 다 떨어져져서, 계대(繼帶)에게 치하(致賀)하고 뎀득이 각설이께 각각(各各) 하직(下直)하는구나. (<변강쇠가>, 615면)

120) 이것들이 식구(食口) 많이 있을 때는 소일(消日)하기 좋았더니 비 오는 날 파장(罷場) 같이 경각간(頃刻間)에 흩어지니 심심하여 살 수 있나. (<변강쇠가>, 615면)

“살았을 제 집이 없고 죽은 후(後)에 자식(子息) 없어 높은 뫼 깊은 구렁 이리저리 구는 뼈를 묻어 줄 이 뉘 있으며, 슬픈 바람 지난 달에 애고애고 우는 혼(魂)을 조상(弔喪)할 이 뉘 있으리 생각하면 허사(虛事)로다, 심사(心思) 부려 쓸 데 있나. 이 생(生) 원통(冤痛) 다 버리고 지부명왕(地府明王) 찾아가서 절절(節節)이 원정(原情)하여 후생(後生)의 복(福)을 타서, 부귀가(富貴家)에 다시 생겨 평생행락(平生行樂)하게 하면 당신(當身)네 신체(身體)들은 청산(靑山)에 터를 잡아 각각 후장(厚葬)한 연후(然後)에 연년기일(年年忌日) 돌아오면 내가 봉사(奉祀)할 것이니 제발 덕분(德分) 떨어지오.”¹²¹⁾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땡득이의 목소리에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제사를 지내줄 수 없는 자손이 없는 강쇠를 비롯한 여덟 구의 시체들을 후히 장사한 이후에 매년마다 기일(忌日)이 돌아오면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약속이다.¹²²⁾ 다음으로는 높은 산과 깊은 구렁에 이리저리 뼈가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에게 후생에는 복을 받아 부귀가(富貴家)에서 평생행락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로이다. 이제는 원통한 죽음으로 시체가 되어버린 그들이 경계 밖의 삶을 살아가며 경계 안쪽의 삶을 희구(希求)했을 하층 유랑민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 약속과 위로는 그들의 원혼을 해결할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땡득이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이들의 원한이 풀렸는지 시체를 진 네 사람의 몸이 땅에서 떨어져 각설이패 세 사람은 그들이 진 시체를 묻어주고 떠났지만, 강쇠와 초라니의 시체는 여전히 땡득이의 등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¹²³⁾

121) <변강쇠가>, 617면.

122) 최동현, 앞의 논문, 124면; 신호림, 앞의 논문, 281면.

123) 애궁(哀矜)히 빈 연후(然後)에 네 놈 불끈 일어서니 모두 다 떨어졌다. 북망산(北邙山) 급(急)히 가서 송장 집을 부리우니 석 집은 다 부리고 땡득이 진 송장은 강쇠와 초라니라 등에 붙어 땡 수 없다. (<변강쇠가>, 617면)

땅에서는 떨어졌으나 여전히 시체가 등에 붙어 있는 모습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뎡득이의 약속과 위로로 인해 다른 시체들의 원한은 풀렸지만, 강쇠의 시체는 끝까지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당한 부당한 집단적 폭력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을 요하는 지점은 <변강쇠가>에서 죽어서까지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부정적 개인을 처리하는 집단의 대응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뎡득이 분(憤)을 내어 사면(四面)을 둘러보니 곳곳한 큰 소나무 나란히 두 주(柱) 서서 한 가운데 빈 틈이 사람 하나 가겠거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르르 달음박질 솔틈으로 쑥 나가니 짙어진 송장 짐이 우두둑 삼동 나서 위 아래 두 도막은 땅에 절뎛 떨어지고 가운데 한 도막은 북통같이 등에 붙어 암만해도 떨어 수 없다. 요간폭포괘장천(遙看瀑布掛長天) 좋은 절벽(絶壁) 찾아가서 등을 갈기로 드는데 갈이질 사설(辭說)이 들은 만하여¹²⁴⁾

웅녀를 추방하고 강쇠를 살해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집단이 죽어서까지 문제적이고 부정적인 개인을 처리하는 마지막 방식은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란히 서 있는 소나무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감으로써 시체를 동강내고, 끝까지 붙어있는 시체의 일부는 절벽에서 갈려 사라진다. 앞서 본고에서는 장승 집단에 의한 강쇠 살해를 살아있는 육체에게 가해질 수 있는 최대한의 폭력으로 보았다.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의 부당함으로 인한 원혼이 해원(解冤)되지 않은 채, 폭력을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시체마저 갈기갈기 흩어버리는 방식은 모호함을 넘어 잔혹하다. 불온한 존재로 간주되는 개인을 경계 밖으로 추방하고, 살해하며, 그 존재마저 흩어버리는 집단적 폭력의 논리는 <변강쇠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4) <변강쇠가>, 619면.

그 집단적 폭력의 결과 남아 있는 것은 옹녀뿐이지만, 그녀 또한 부지소종(不知所從)의 결말을 맞이한다.¹²⁵⁾ 그 긴 치상 과정을 다 견뎌낸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쇠의 시체를 처리한 땀득이와도 맺어지지 못하고 서사의 이면으로 사라진다. 땅에 묻히지 못하고 결국 가루가 되어버린 강쇠처럼 옹녀 역시 경계 안에 발붙이는 삶에서 멀어져 경계 밖에서 계속해서 떠돌 뿐이다.¹²⁶⁾

125) 월(越)나라 망한 후(後)에 서시(西施)가 소식(消息) 없고, 동탁(董卓)이 죽은 후에 초선(貂蟬)이 간 데 없다. (<변강쇠가>, 619면)

126) 이러한 결말은 일반적인 고전소설이 보여주는 종결방식과 차이를 보여주는 <변강쇠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곳으로도 시체를 갈아버리는 처리 방식으로 강쇠의 욕망과 원한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옹녀 역시 경계 안에 발붙이는 삶에서 멀어짐으로써 경계 밖에서 계속해서 떠돌 뿐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산재한 <변강쇠가>의 결말부는 일견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서사의 일반적인 종결 논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기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본고는 폭력론적 관점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번 폭력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든 것이 폭력의 현실성이라고 했을 때, <변강쇠가>의 결말부는 어쩌면 이러한 폭력의 본질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후의 작업으로 남겨두도록 한다.

IV. 폭력론과 <변강쇠가>

고대 신화부터 현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등장하지 않는 서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인간이 크고 작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는 한, 또 현실이 투영되는 문학의 특성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바리데기와 같은 신화나 공동체에 의해 살해되는 아기장수와 같은 설화, 그리고 판소리 사설의 여러 작품들에서도 주인공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차이는 있겠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모두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어 좌절하고 고난과 위기를 겪는다. 그로 인해 그들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위기와 좌절을 드라마틱하게 극복함으로써 영웅적 대상으로 추앙받기도 한다. 이처럼 대다수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폭력은 그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의 교훈적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서사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반면, 앞서 살펴보았던 <변강쇠가>의 폭력은 그 작동방식과 양상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작품의 뼈대를 이룬다. 즉 <변강쇠가>에서의 폭력은 등장인물들의 영웅적 캐릭터를 드러내거나 교훈적 이념을 도출하기 위한 서사적 기능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당대 하층민들에게 만연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다양한 폭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폭력은 <변강쇠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또한 <변강쇠가>의 폭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인공들이 시종일관 부정적인 개인으로 낙인찍히고 외면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 희생을 인정받아 신원(伸冤)되고 보상받게 되는 대다수의 작품들과 다른 <변강쇠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열(烈), 효(孝), 충(忠) 등의 가치나 교훈적 결말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이 수단적으로 활용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변강쇠가>에서는 폭력은 시종 일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폭력으로 시작해서 폭력으로 끝나는 <변강쇠가>의 구조는 해피엔드로 끝날 수 없는 현실적 폭력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옹녀가 추방되는 시점부터 장승들이 강쇠를 살해하고 그 시체가 처리되는 과정 전면에서 폭력은 점점 잔혹해지며, 그 연쇄성과 잔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변강쇠가>는 현실적인 폭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변강쇠가>의 폭력성을 현실 폭력의 포착, 폭력의 집단성과 군중심리, 그리고 감정이입의 배제와 2차 폭력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1. 현실 폭력의 포착

<변강쇠가>가 다른 작품들과 달리 현실의 폭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했을 때,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과 조선 후기 하층민들의 폭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훼가출송(毀家黜送)의 방법을 통한 옹녀의 추방과 병도배(病塗褓)를 통한 강쇠의 살해 상황에 나타난 폭력이 얼마나 현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봄으로써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조선시대 일반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갈등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특히 하층민들의 사적인 영역 중에서도 일상적 폭력과 같은 사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료상의 한계 때문이다. 이전까지 이용되었던 조선후기 향촌사회상에 대한 자료들은 대부분 관청에 남아있는 사료(史料)들 아니면 재지사족들 중심의 기록들이기 때문에, 하층민들의 현실에서 일어났던 폭력상을 생생하게 보여주

는 자료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¹²⁷⁾ 하층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정리한 기록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탓에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그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폭력에 관심을 갖고 기술한 자료도 거의 없는 형편에서 이처럼 미시적인 영역을 검토하기란 분명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다양한 범죄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의 존재는 주목을 요한다. 재판 기록인 판례에는 소송, 사건에 연관된 백성들의 사실이 다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국가기관의 수사와 재판, 민형사 소송에 관련된 판례 자료가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審理錄』¹²⁸⁾과 『欽欽新書』와 같이 특정 시기 살인사건에 관한 판례를 모아 놓은 책, 한 지역 백성들의 민소(民訴) 행위에 수반되어 관에 제출된 문서인 민장(民狀)을 모아 놓은 『民狀置簿冊』, 그리고 살인 등의 인명사건에서 검시 및 수사 단계의 자료에 해당하는 검안(檢案)¹²⁹⁾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향촌사회의 하층민들의 일상에 존재했던 폭력성과 도덕적 불감증 등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조선 후기 하층 여성들의 경우 강도뿐 아니라 강간 등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대개 강간은 과부 등 혼자 사는 여인이나 외지에서

127)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 영광지방의 민장내용분석-」, 『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338면.

128) 『심리록』은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던 1775년 12월부터 사망한 1800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심리, 판결한 중죄수에 대한 사건 내용과 그 처리과정을 기록한 책자이다. 여기에는 형조(刑曹)에서 관장하던 살인 등 형사범에 관한 판례 1,112건이 수록되어 있다. 심재우, 「『심리록』과 조선시대 판례 읽기」,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28면.

129) 검안(檢案)은 ‘檢屍文案’의 줄임말로 조선시대에 사망한 사람의 시체 검사 소견서인 屍帳을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한 일체의 조사 보고서를 말한다. 특히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이를 정리, 보고하였는데 모든 심문과 진술을 아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 기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거의 600여 종에 달하는 조선 후기 그리고 개항기의 검안 자료가 2천여 책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전하고 있다. 이 중에는 18세기 초반의 검안도 있지만, 대부분은 19세기 중·후반의 자료들이다. 김호, 「규장각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김호,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사회사」, 『역사비평』 55, 역사비평사, 2001 참조.

흘러들어왔거나 가난하여 남의 집에 기식하는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졌다. 이미 18세기 말 조선사회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겁탈하고 결박하여 보쌈해오는 행위가 평·천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하층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단지 치도율(治盜律)로 다스려졌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¹³¹⁾

<변강쇠가>에서 옹녀가 남편들이 죽어나갈 때마다 개가(改嫁)를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층 여성인 옹녀로서는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법적으로도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폭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옹녀의 개가(改嫁)는 충분히 예상되는 폭력으로 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인 동시에 그녀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옹녀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이삼년(二三年)씩 걸러 가며 상부(喪夫)를 할지라도 소문(所聞)이 흉악(凶惡)할 터인데 한 해에 하나씩 전례(前例)로 처치(處置)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둥서방(書房), 그남은 간부(間夫), 애부(愛夫),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젖 한 번 쥔 놈, 눈흘레한 놈, 손만져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상척자락 얼른 한 놈까지 대고 결단을 내는데, 한 달에 못을 넘겨, 일 년에 동 반 한 동 일곱 못, 윤삭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설그질 제, 어떻게 쓸었던지 삼십 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姑捨)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總角)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處女)가 집을 이니¹³²⁾

130) 심재우, 『『審理錄』연구-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5, 145~146면.

131) 이 밖에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겁탈 사례가 『심리록』에 여럿 실려 있다. 이 당시 지방에서 수절하는 과부를 밤중에 겁탈하고 결박하여 보쌈해오는 행위가 평민과 천민들 사이에 ‘박취(縛娶)’라 하여 상당히 성행하였음은, 이보다 얼마 뒤인 1805년 형조판서 이면공의 건의에 의해 박취 행위를 치도율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규가 새로 마련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受教定例』, 92조, 「縛娶之類 施以治盜律」(순조 5년) 참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옹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소문(所聞)의 형태로 퍼져나간다. 조선후기 향촌 사회에서 나쁜 소문은 ‘강력한 사회적 구속력’을 지닌 것이었다.¹³³⁾ 남성이나 여성을 막론하고 간음의 추문뿐만 아니라 도둑질, 패륜 등의 나쁜 소문도 소문의 당사자를 폐쇄적인 향촌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심지어 추문은 종종 극단적 폭력을 야기해 자살 및 살인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정도이다.¹³⁴⁾ <변강쇠가>에서 옹녀는 경우 여섯 명의 남편을 처치한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그녀에게 눈길을 준 남성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다. 못 남성들의 죽음과 음란한 여성의 이미지가 결합하여 퍼져나가는 옹녀와 관련된 추문은 실제로 후에 마을 공동체가 그녀를 폭력적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된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삶과 일상생활 전체가 성(性)의 관점에서 감시되고 조직되었다.”¹³⁵⁾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여성의 정절 의식은 양반 여성은 물론 평민 여성의 행동까지 제약할 만큼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로 확대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여성들은 신분 고하(高下)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姦淫)했다는 추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특히 신분이 높을수록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때에 따라서는 스스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³⁶⁾

132) <변강쇠가>, 533면.

133) 김호, 위의 논문, 1998, 193면.

134) 박소현, 「검안을 통해 본 여성과 사회」, 『고문서연구』 제 50호, 한국고문서학회, 2017, 15면.

135)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95면.

136) 정조 때의 유명한 金銀愛 사건은 당시 여성들이 그들의 정절과 관련된 추문에 얼마나 극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김은애는 강진현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는데, 娼妓 출신 安老婆가 공공연히 김은애와 崔正連이라는 자가 간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김은애는 집안 사람들 몰래 안노파의 집에 가서 혼자 자고 있던 안노파를 무려 열여덟 번이나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부는 『審理錄』과 다산 정약용의 『欽欽新書』에도 실려 있다. 정조는 오히려 김은애의 행동이

그러나 하층민이었던 옹녀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홀대받는 하층민 여성에게는 지켜야 할 명예도 자존심도 없었고 허락조차 되지 않았으며, 또 어느 누구하나 이를 제대로 가르쳐준 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면 그녀에게는 그런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려 시도하는 것조차 사치였을지 모른다. 동네 주민들이 굳이 나서서 소문을 내고 지탄하지 않아도, 그녀 스스로 느끼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도 살기 위해 다시 재가를 선택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처량하고 비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을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구하기만 한 그녀의 삶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녀가 살던 평안도(平安道) 월경촌(月景村) 공동체와 평안도 전체를 넘어 황해도(黃海道)에 이르기까지, 주변 주민들은 동정이나 연민 대신에 공론을 통해 일제히 그녀를 추방하기로 결정한다. 그녀의 끊임없는 개가로 인해 마을 삼십 리 안팎에 상투올린 사나이는 고사(姑捨)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없어, 마을에 남자라고는 다시 없고 곧 여성만 가득한 여인국(女人國)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옹녀라는 인물과 그녀의 거취가 그들 공론의 주제였음에도, 실제 옹녀는 그 공론장에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다. 그녀에게서 해명을 듣거나, 사실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옹녀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옹녀를 쫓아낸다고 해도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배려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과정이나 노력은 전혀 없다. 옹녀 없이 결정된 옹녀의 거취 문제는 자신들의 무사안녕과 남성노동력 확보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옹녀에게 내려진 훼가출향(毀家出鄉)이라는 황·평 양도(黃·平 兩道)의 결정은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옹녀에게는 잔인

편협한 전성을 지닌 연약한 여자로서 남자도 해내기 힘든 일을 했다고 칭찬하면서 김은애를 사면했고, 이덕무로 하여금 傳을 지어 그녀의 절조를 널리 알리도록 했다.

하고 극악한 정서적·문화적 폭력이기도 하다. 횡가출향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자의 집을 부수고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중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족들이 향촌의 풍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다.¹³⁷⁾ 강력한 향권(鄕權)을 기반으로 한 영남 양반들의 횡가출향은 인조 때에는 다른 도에까지 확산되었는데, 인조는 사족들의 횡가출향이 관권을 넘어서는 행위로 간주하고, 공형벌권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횡가출향의 시행을 금지시켰다. 이후 현종 7년에는 횡가출향을 재차 금지하는 수교를 제정하여 이 수교가 법전에까지 실리게 된다.¹³⁸⁾

문제는 법으로 금지되었던 횡가출향이 <변강쇠가>에서는 옹녀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에 법적 제제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폭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을 홀로 길가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세계가 19세기의 조선이었으며, <변강쇠가>는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당대 여성의 처지를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18세기와 19세기의 폭력은 개인들 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에 대한 집단의 폭력 역시 검안을 통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 집단은 양반의 문종일 수도 있으면 평민들의 상호부조 조직이기도 했다. 특히 초군(樵軍)이나 보부상과 같은 집단은 매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사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가

137) 실록에 따르면 사족들의 횡가출향은 선조 대 진주의 진사(進仕) 하종악(河宗岳)의 후처(後妻)가 음행(淫行)을 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죽은 진사 하종악이란 자의 후처가 음행을 하자 진주의 사족들이 관에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을의 풍기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그 집을 부수고 그녀를 마을에서 쫓아낸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선조왕조실록』 권3, 선조 2년 5월 갑진)

138) 『受教輯錄』, 권5, 刑典「禁制」, ‘毀家出鄕 依仁祖朝受教 一切禁斷康熙丙午承傳’ 이 수교는 『속대전』에도 실린다 (『續大典』 권5, 刑典「禁制」). 한편 『大全通編』에는 횡가출향에 대한 처벌 형량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民家를 강제로 부순 자는 대명률의 故燒自己房屋律(杖一百)로 논한다’는 조문도 추가되었다 (『大全通編』 권5, 刑典「禁制」, ‘勒毀民家者 以故燒自己房屋律論’).

죽이나 동장(洞長) 등을 협박하여 관에 알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식적인 조사까지 방해했다.¹³⁹⁾

검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의 폭력 중 그 진행과정이나 방법 면에서 주목을 요하는 사건이 있다.

1896년 평안도 함종에서 보부상 대회가 열렸다. 평안도 일대 13개 읍의 보부상 600여명이 모여 생사를 함께하자는 결의했다. 이 해 여름에 그들의 동료인 조인석이 김용신에게 살해당한 일이 발생했고, 김용신은 살인죄로 함종군 감옥에 갇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결의 당시 보부상들은 회의를 열어 자신들이 직접 김용신을 처벌하기로 결정한 후, 군의 감옥을 부수고 김용신을 마을 경계로 끌고 갔다. 이후 수십여 명의 보부상원들은 동료 조인석의 죽음을 갚는다며 모두 돌아가면서 한 대씩 김용신을 구타하여 살해했다.¹⁴⁰⁾

19세기 후반 평안도에서 보부상 집단에 의해 벌어진 이 살인사건은 <변강쇠가>에서 장승 집단이 강쇠를 징치하는 폭력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집단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존재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폭력이 행사되기 이전에 집단 내부의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폭력의 행사될 때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선 후기 하층민들의 현실을 잘 드러낸 것으로 여겨지는 검안에 나타난 폭력과 <변강쇠가>의 폭력. 놀라우리만치 유사한 이 두 폭력을 대면했을 때, <변강쇠가>에서 관찰되는 폭력은 당시 현실에서 실존했고 또 있을법한 폭력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안>의 기록과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유사성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폭력 장면의 차이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작업일

139) 김호, 「檢案, ‘예외적 정상’의 기록들」,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315면.

140) 『咸從郡中里面仲仙里致死殺獄正犯罪人金用信屍身文案: 初檢, 覆檢』 <奎2138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것이다. 주지하듯이 <변강쇠가>에서 강쇠가 살해되는 폭력의 주체는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장승 집단이다. 앞서 장승이 향촌 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을 상징한다고 보았을 때, 장승 집단이 폭력의 주체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은 단순히 문학적 상상력의 결과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미 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추방된 옹녀와 강쇠의 처지에서 경계 안의 사람들과의 접점은 소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계 안으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경계 안과 밖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미라도 보인다면 언제든 폭력은 다시 행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장승은 이러한 폭력이 문제없이 행사될 수 있게 하는 장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폭력의 주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장승 집단이 되었을 때, 그 수단과 정도가 보다 심화되는 모습은 이미 옹녀의 추방과 강쇠의 살해 장면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부정적 개인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이처럼 끝나지 않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장승이 폭력의 주체로 설정되었다고 여겨진다.

폭력을 둘러싼 삶의 긴장과 역동성은 당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난무하는 폭력 앞에 상층보다 하층이, 보부상과 같은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남정보다 여성이 불리한 것은 당연했다. 강자로부터 약자에게로 가해지기 마련인 폭력의 속성상,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어떠한 힘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것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분명하다.¹⁴¹⁾ <변강쇠가>는 이처럼 폭력을 피해갈 가능성이 적은, 어쩌면 그 가능성마저 박탈당한 하층의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당한 폭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찾은 <변강쇠가>의 문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41) 김호, 앞의 논문, 2001, 15면.

2. 폭력의 집단성과 군중심리

<변강쇠가>에서 옹녀와 강쇠에게 가해진 폭력의 공통점은 그 주체가 매우 집단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폭력의 유형 중에서도 집단 對 개인의 폭력, 즉 거대한 힘을 가진 한 집단이 주체가 되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수나 개인에게 행사하는 폭력 유형이다.

앞서 언급한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메커니즘은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적 폭력을 제거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갖춰나가기 위한 희생양의 존재와 그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 폭력의 집단성을 설명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보다는 그 집단에게 희생당하는 희생양, 즉 폭력의 피해자인 개인이나 소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집단성 혹은 집단적 폭력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집단 對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적 폭력에 접근하기 위해 집단주의의 개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집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집단주의는 “인간의 집단적 정체성을 자명하게 여기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신념”¹⁴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리학자 트리안디스는 주로 이러한 집합체(집단)에 의해 부과된 의무와 규범에 의해 동기화되고, 자신의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합체의 목표에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집합체의 성원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집단주의라고 설명한다.¹⁴³⁾ 즉 집단주의는 집단 내 구성원들과의 상호연계성을 포함하여 성원들 간의 헌신 및 관심과 배려 등이 강조되는 사회, 이러한 관계로 맺어진 촘촘한 연결망을 통해 각자의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원활히 유지되는 사회 혹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142) 박수현, 「‘우리’를 상상하는 몇 가지 방식」,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225면.

143) Triandis, H. 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1995, p.2.

이러한 집단주의는 강력한 내집단의 존재, 내집단의 구속성, 집단에의 충성 등에 대한 자질이 그 성격을 규정하며¹⁴⁴⁾,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개별적 자아정체성보다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귀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기본적 사회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신념 역시 집단주의에 수반된다.¹⁴⁵⁾ 이러한 성향은 집단 내에서 한 개인의 위치 혹은 지위 확인이나, 내집단의 구성원과의 동일성을 추구하는데 사회화의 강조점이 주어지게 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친절성, 상냥함, 겸손함 등의 관계적 · 조화적 · 상호의존적인 인간관이 형성되도록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적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동정 · 수치 · 공감 · 수치심 등 타인을 일차적인 참조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정서(integrating emotion)가 권장되고 많이 경험되는 편이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적 성향보다는 외적 · 상황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중심을 두고 인간을 파악하여, 이러한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사회적 압력을 행위의 원동력으로 봄으로써,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내적 성향 보다는 상황적 요인에서 찾는 상황주의 편향(situationalist bias)이 특징으로 나타난다.¹⁴⁶⁾ 또한 개인을 타인과 밀접하게 이끌고,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공동체감을 촉진시키는 행동을 산출하는 일체성(communion)의 동기¹⁴⁷⁾가 중시되는데, 이러한 일체성의 동기들은 타인이나 집단에 관심을 집중시켜 집단의 소속감을 지향하고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모방 · 친밀함 · 존경 · 소속 · 사회적 용인 추구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는 집단주의 사회의 긍정적인 자질이기도 하다. 생각해볼 점은 집단주의와 집단주의 사회가 모두 긍정적인 자질을 갖추고 선한 영

144) 한규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 한국심리학회, 1991, 2~10면.

145)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문화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 『순천향 인문학과 논총』 33,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100면.

146) 조공호,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사회과학연구』 12,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18~19면.

147) Geen, R. G.,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Brooks/Cole, 1995, p.249.

향력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집단주의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때, 때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강쇠가>는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의 부정적 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헤르트 홉스테드는 집단주의에 대해 “사람이 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주는 것”¹⁴⁸⁾이라고 논했다. 집단주의 안에서 개인은 집단 내 구성원과의 인간관계에 수반되는 역할과 의무를 다함은 물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순간동안에는 그 구성원들에게 평생에 걸쳐 충성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령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령은 개인으로 하여금 내집단에게 강한 애정을 갖게 하는 반면, 외집단에게는 상당한 거리감과 더 나아가서는 배타적 감정을 갖게 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집단 안에서는 친절 · 상냥함 · 겸손과 관용, 그리고 집단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친밀한 관계를 통해 더할 나위 없는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요소들의 이면에 보이는 배타성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집단은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는 너그럽고 온화하며 집단의 조화와 화목을 위해 노력하지만, 집단 밖의 외집단들과 어떤 이유에서든지—자발적이든 혹은 비자발적이든—문제가 있다고 낙인이 찍혀 집단 밖으로 내몰린 개인에게는 한없이 몰인정 · 무관심 · 무례하며,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개인은 이러한 집단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며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위력을 가진 집단과 무력한 개인이라는 전형적인 힘의 불균형의 구도 안에서 집단은 정당성의 여부와는 별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 위에 군림한다.

집단이 이처럼 무서운 배타성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내적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집단적 동질성, 즉 획일성을 강

148) 헤르트 홉스테드 외,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118면.

요하며 구성원의 다양성과 단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다. 통제를 받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어려우며, 합리적 의심이나 불신(不信) 역시 허락받기 어렵다. 집단의 일원으로서 개인은 오직 집단에 충성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강령을 강요받게 되며, 개인의 이견이 담긴 목소리는 종종 묵살 당하거나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름과 다양성이 인정받기는커녕, 죄악시되기까지도 하는 집단주의에서 집단의 구성원은 집단의 안녕과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 개인이 있기에 집단이 있는 것이 아닌, 집단이 있기에 개인이 있다는 인식은 개인으로부터 외롭거나 두렵지 않게 집단 안에 온전히 소속되고 싶은 결속력을 유도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집단과 엮나가는 문제 유발자(trouble maker)가 되지 않기 위해 또 그러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집단에 부단히 충성하고 노력하도록 한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찍힌 개인들은 너무 쉽게 집단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 내에서 요구되는 강한 결속력만큼이나 외집단 혹은 집단 내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을 향해 보여주는 그들의 철저한 배타성은 언제라도 폭력으로 전화(轉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주의사회는 기존의 질서와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종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정책보다는 배척 혹은 퇴출이라는 폐쇄적인 선택을 한다. 개인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확대한다는 구실로 인해 집단 고유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이해관계가 흐트러지는 등 집단 결속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 보다는,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에 대해 배척이나 퇴출이라는 부정적 조치를 통해 나아가 집단의 규율과 윤리를 어기거나 어지럽혔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의 동요(動搖)를 막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폭력성, 즉 집단적 폭력은 이러한 배척과 퇴출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곤 한다.

황·평양도(黃·平兩道) 공론(公論)하되, “이 년을 두었다는 우리 두 도내(道內)에 쫓 단 놈 다시없고, 여인국(女人國) 될 터이니 쫓을 밖에 수가 없다.” 양도(兩道)가 합세하여 훼가(毀家)하여 쫓아내니¹⁴⁹⁾

<변강쇠가>에서도 이러한 폭력을 관찰할 수 있다.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개가를 한 아름다운 옹녀는 그녀가 속한 집단 안에서 외모부터 생활모습까지 집단 구성원들과 융화되기 어려운 “다름”이 넘치는 인물이다. 평범한 하층민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용모에서 뿔어져 나오는 다름, 정절을 미덕이자 윤리로 여기는 당시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는 다름은 그녀를 문제가 있는 개인으로 낙인찍도록 하는 구실, 즉 옹녀가 속했던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옹녀를 배척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황해도와 평안도 집단은 공론을 통해 옹녀를 집단의 구성원으로 계속 두면 남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여인국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합세하여 쫓아낸다. 사실 옹녀라는 한 여성이 황해도와 평안도 내에서 남성 노동력의 고갈과 여인국화(女人國化)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兩道) 집단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보다는 속히 훼가출향하여 내쫓는 것으로 작품 초반부터 배타성에 기인한 배척과 퇴출이라는 집단적 폭력이 드러난다.

물론 집단적 폭력이 단순한 배척으로 시작해서 퇴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적 폭력은 대해 일탈적 행동을 정의하고 반응하는 집단 내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인 통제¹⁵⁰⁾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의 “통제”는 집단의 규율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는 것부터, 낙인찍기나 따돌림을 넘어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응징, 나아가서는 집단린치나 추방의 수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집단 내 규율과 이데올로기적 사고에서 벗어난 개인에게 주로 강한 배타성을 드러내며 통제하는 과정에서 집단이 보여주는 행동은 쉽게 폭력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이 배타성은 폭력이 폭력을 낳는, 2차·3차의 연쇄적 폭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149) <변강쇠가>, 534면.

150) Donal Black, “Social Control as a Dependent Variable”,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Control* vol.1, Academic Press, 1984, p.1.

일제히 절을 하고, 문안을 한 연후에 대방이 발론하여, “통문사의(通文事意) 보았으면 모은 뜻을 알 터이니 변강쇠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꼬.” 단천(端川) 마천령(摩天嶺) 상봉(上峯)에 섰는 장승 나와서 여짜오되, “그 놈의 식구(食口)대로 새남터로 잡아다가 효수(梟首)를 하옵시다.” (중략) 강쇠라 하는 놈도 부지불각(不知不覺) 효수(梟首)하면 세상이 알 수 없어 징일려백(懲一勵百) 못 될 터니 여러 동관님네 다시 생각하옵소서.” 압록강가 섰는 장승 나서며 여짜오되, “출호이자(出乎爾者) 반호이(半乎爾)가 성인(聖人)의 말씀이니 우리의 식구대로 그 놈 집을 에워싸고 불을 버섯 지른 후에 못 나오게 하였으면 그 놈도 동관같이 화장이 되오리다.” 대방이 대답하되, “흉악한 그런 놈을 부지불각 불지르면 제 죄를 제 모르고 도깨비 장난인가 명화적(明火賊)의 난리런가 의심을 할 터이니 다시 생각하여 보오.” 해남 관머리 장승이 여짜오되, “대방님 하는 분부 절절(節節)이 마땅하오. 그러한 흉한 놈을 쉽사리 죽여서는 부끄러움을 씻지 못 할 터니 고생을 실컷 시켜, 죽자 해도 썩 못 죽고, 살자해도 살 수 없어 칠칠이 사십구 한 달 열 아흐레 밤낮으로 보깨다가 험사(險死) 악사(惡死)하게 하면 장승 화장한 죄인 줄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꽤히 징계(懲戒) 될 터이니, 우리의 식구대로 병(病) 하나씩 가지고서 강쇠를 찾아 가서 신문(函文)에서 발톱까지 오장육부(五臟六腑) 안팎 할 것 없이 새 집에 앙토(仰土)하듯, 지소방(紙所房)에 부벽(付壁)하듯, 각장(角壯) 장판(壯版) 기름 걸 듯, 왜관(倭館) 목물(木物) 칠살같이 겹겹이 발랐으면 그 수가 좋을 듯하오.” 대방이 매우 기뻐하여, “남해 동관 하는 말씀 불변불요(不煩不擾) 장히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쇠놈에 저리 많은 식구들이 정처없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축이 들고 빠진 데는 틈 날 터니 머리에 서 두 팔까지 전라, 경상 차지하고, 겨드랑서 볼기까지 황해, 평안 차지하고, 항문에서 두발까지 강원, 함경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복(內腹)일랑 경기, 충청 차지하여, 팔만 사천 털구멍 한 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발 바르라.”¹⁵¹⁾

151) <변강쇠가>, 557~559면.

위의 제시문은 장승들이 공론을 열어 강쇠를 징치할 방법을 논의하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강쇠가 장승을 땔감으로 쓴 것에 대해 응징하고자 전국 팔도의 장승들이 모두 모여 있다. 문제는 그들이 선택한 징치 방법이 있다. 한낱 불량한 인간에 불과한 강쇠가 영물(靈物)이자 벽사(辟邪)의 존재인 장승에게 가할 수 있었던 폭력은 도끼로 패서 땔감으로 쓴 것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당시의 통념상 죽음은 죽음으로써 갚는다는 식의 응징으로 끝났어도 부족하지 않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장승 집단은 이에 대해 “그러한 흉한 놈을 쉽사리 죽여서는 부끄러움을 씻지 못 할 터니 고생을 실컷 시켜, 죽자 해도 썩 못 죽고, 살자해도 살 수 없어 칠칠이 사십구 한 달 열 아흐레 밤낮으로 보깨다가 험사(險死) 악사(惡死)하게” 하기로 한다. 죽고 싶어도 쉽게 죽을 수 없도록 온갖 고생을 하다 서서히 죽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장승집단의 공론이 온전히 타당한 것일까에 대해 의문을 가져봄직하다. 이들은 강쇠를 “흉악한 놈”으로 규정한다.

이미 불온(不穩)한 존재로 낙인찍힌 강쇠에게 장승집단은 잔혹한 폭력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강쇠가 장승에게 가한 폭력으로 인해 강쇠 역시 장승집단에게 병도배라는 폭력으로 되갚음 받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폭력의 정도가 심한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강쇠라는 인간이 한 장승을 땔감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 對 개인의 폭력으로 볼 수 있으나, 피해를 받은 장승은 혼령이 되어 자신이 받은 피해는 곧 모든 장승의 집단을 향한 것이라는 말로 다른 장승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장승 집단 모두가 강쇠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으로 응징하게 된다. 이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 과정에서, 그 폭력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강쇠가 받은 병도배는 다시 옹녀와 다른 하층 유랑민들에게로 화살을 돌리게 되며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된다. 폭력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이 지점에서 폭력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옹녀와 강쇠가 속한 집단이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데 있어서 집단에 속한 개별 주체의 의견이나 사상 및 신념은 전혀 조명되지 않고, 오직 공통된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의 집단적 행동과 결과로서의 폭력만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변강쇠가>에서 옹녀를 쫓아낸 마을 공동체나 강쇠를 살해하기로 모의하는 장승 집단 중에서 옹녀와 강쇠에게 이러한 폭력을 가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갖거나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가진 구성원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만약 그러한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회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귀스타프 르 봉(Gustave Le Bon)은 이를 ‘군중심리’의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르 봉은 저서에서 “일반적으로 군중(Crowd, Foule)이라 함은 개인의 집단을 말하며 국적이나 직업, 남녀의 구분, 모이게 된 동기에 구애받지 않으며, 집단화된 모든 개인의 감정과 사상은 하나의 동일한 방향을 향하게 되고 각자의 개성 있는 의식은 종적을 감추며 새로운 집단심리가 발생한다.”¹⁵²⁾고 설명한다. 군중을 형성하는 개인이 누구이건, 그들이 군중으로 화(化)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집단 심리를 갖게 하며, 개인이 군중을 형성할 때가 아니면 결코 나타나거나 행동화되지 않을 사상과 감정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집단적인 심리가 형성되면 개인의 지능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개성은 약해지며, 동질성이 이질성을 압도하고 무의식적 특성이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심리적 특징이 도드라지게 된다. 르 봉은 이러한 군중의 특성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 군중을 형성하는 개인은 오직 수적(數的)인 요인만을 생각한 나머지 수적인 힘을 느끼게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억제했던 본능을 마구 발산한다. 일단 그렇게 되면 군중이 익명적이고 따라서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자신을 억제할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것이 전면적으로 소멸해 버린다. 두 번째로 감염성이

152) 귀스타프 르 봉, 『군중심리』, 간디서원, 2005, 23~24면.

두드러진다. 감염성은 군중의 특성이 표명되도록 작용하고, 군중의 향방을 결정한다. 군중의 경우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성을 갖고 있으며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정도로 감염성은 대단하다. 이것은 개인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성향이며 사람이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군중 속의 개인에게는 고립된 개인으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⁵³⁾ 이러한 군중 심리의 특성은 <변강쇠가>에 나타난 집단적 폭력의 양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황·평양도(黃·平兩道) 공론(公論)하되, “이 년을 두었다는 우리 두 도내(道內)에 쫓 단 놈 다시없고, 여인국(女人國) 될 터이니 쫓을 밖에 수가 없다. 양도(兩道)가 합세하여 휘가(毀家)하여 쫓아내니¹⁵⁴⁾

양도(兩道)가 옹녀의 거취문제를 놓고 공론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군중 심리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마을 공동체에 속한 개인 중 일부는 같은 마을 주민인 과부 옹녀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문제를 공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의 감정과 생각은 철저히 배제되고 오직 집단적인 생각—그것이 얼마나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없이—과 행동의 결과만이 존재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힘없는 하층민인 옹녀가 몇 번의 재가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거나 병사한 것만으로는 황해도와 평안도라는 넓은 지역에 남자가 사라질 일도, 또 여인국(女人國)이 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황해도와 평안도의 집단은 이 허무맹랑한 상상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고, 합세하여 옹녀를 추방하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는 “군중은 또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 군중은

153) 귀스타프 르 봉, 위의 책, 31~32면.

154) <변강쇠가>, 534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떠오른 상상이 목격된 사실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도 그렇다.”¹⁵⁵⁾라고 지적하는 르 봉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공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이나 소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군중심리 이론가인 맥두걸(W.McDougall)은 이를 두고 “각 개인들이 고립된 상태에서보다 집단을 이루었을 때 훨씬 강한 힘을 발산하며, 이 경우 대부분의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를 잃는 상태에 있다”¹⁵⁶⁾고 주장했다. 이는 우매한 군중의 여론보다 명철한 개인의 의견이 더욱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음에도, 수적(數的)으로 우세한 군중의 여론이 힘을 갖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군중 심리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게 되고, 집단이라는 체제 속에서 생성되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맹목적으로 한 방향만을 향하게 된다. 이때 군중이 느끼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보통 집단에 참가한 한 개인에 의한 최초의 고향이 감염적 암시의 출발점이 된다.¹⁵⁷⁾ 이러한 군중심리의 특징은 강쇠에 대한 폭력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기(京畿) 노강(鷺江) 선창(船艙) 목에 대방 장승 찾아가서 문안(問安)을 한 연후(然後)에 원정(原情)을 아뢰기를, “소장(小將)은 경상도(慶尙道) 함양군(咸陽君)에 산로(山路) 지킨 장승으로 신기(神祇) 처리(處理)한 일 없고, 평민(平民) 침학(侵虐)한 일 없어, 불피풍우(不避風雨)하고, 각수본직(各守本職)하옵더니 변강쇠라 하는 놈이 일국(一國)의 난봉으로 산중(山中)에 주접(住接)하여, 무죄(無罪)한 소장(小將)에게 공연(空然)히 달려들어 무수후욕(無數詬辱)한 연후(然後)에 빼어 지고 제 집 가니, 제 계집이 깜짝 놀라 도로 갖다 세워라 하되, 이 놈이 아니 듣고 도끼로 쿵쿵 패어 제 부엌에 화장(火葬)

155) 귀스타프 르 봉, 앞의 책, 44면.

156) W.McDougall, *Group Mind: A Sketch of the principles of Collective Psychology, with Some Attempt to Apply Them to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ife and Character*. New York: G.P. Putnam's Sons, 1920.

157) 귀스타프 르 봉, 앞의 책, 44면.

하니, 이놈 그저 두어서는 삼동(三冬)에 장작(長斫)감 근처(近處)의 동관(同官) 다 패 때고, 순망치한(脣亡齒寒) 남은 화(禍)가 안 미칠 데 없을 테니 십분(十分) 통촉(洞燭) 하옵소서. 소장(小將)의 설원(雪冤)하고 후환(後患) 막게 하옵소서.”¹⁵⁸⁾

강쇠에 의해 떨감으로 사용되는 봉변을 당한 장승 혼령이 대방 장승을 찾아가서 사건을 발고(發告)하는 위의 대목은 한 개인에 의한 최초의 고향이 군중심리 형성에 미치는 감염적 암시를 보여준다. <변강쇠가>에서 강쇠가 장승을 장작감 대신 뽑아 온 것은 장승에 대한 개인적 원한이나 부정적 시각이 작용해서가 아니라, 옹녀의 성화에 못 이겨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의 내력을 훑다보니 떨감으로 쓸 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¹⁵⁹⁾ 그러나 장승 혼령은 이러한 강쇠의 사고와 행동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억울함과 원통함에 덧붙여 장승 집단에 속한 자신에 대한 공격은 곧 모든 장승 집단을 향한 공격이 될 것이라며 확대해석하고 고향한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대방 장승과 전국의 장승들은 사건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고 논하기 보다는, 강쇠의 행동을 장승 공동체에 대한 공격, 즉 공동체 내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방안을 공론화하는데 집중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집단 외부의 존재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는 인식은 소속 구성원들에게 실로 큰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문제는 소속 구성원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하게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보다 단순하고 무의식적이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한다는 것이다. 르 봉은 오랫동안 공유해온 무의식에서 비롯된 구성원들의 행동방식은 대체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되며, 이때 군중의 법적 과실 가능성과 무책임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⁶⁰⁾ 맥두갈 역시 군중이 공유하고 있는 단순한 감정들이 구성원들의 무의식으

158) <변강쇠가>, 555면.

159) <변강쇠가>, 549~551면 참조.

160) S. Reich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로 기능하여, 원시적 형태의 감정수준으로 존재한다고 역설했다.¹⁶¹⁾

이러한 충동적이고 원시적 형태의 감정수준은 군중의 심리가 보다 폭력적이고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기폭제가 된다. 강쇠의 행위를 장승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장승들이 그들만의 인민재판을 열어 강쇠를 어떻게 징치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을 보면, 과연 그들이 성스러운 마을의 수호신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만큼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강쇠라는 천한 인간의 등장엔 신령한 전국의 장승들은 분노하며 너나할 것 없이 앞장서서 강쇠를 처벌할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목할 점은 징치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할수록 그들이 내는 의견은 점점 고도로 치밀해지고, 잔인해져 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르 봉은 군중 속에서 과장된 감정이 증폭되는 이유는 어떤 감정이든 일단 공개적으로 노출되면 암시와 감염에 의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뚜렷한 동조가 그 힘을 가속시키기 때문이며,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확실성, 군중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다는 확실성, 수(數)에서 오는 막강한 순간적 세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립된 개인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감정과 행동이 군중으로부터 폭발하는 것이다”¹⁶²⁾고 설명한다.

개인의 경우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은 문제도 군중 속의 개인에게는 분노의 발단이 된다. 특히나 외집단적 요소에 대해 군중의 심리와 감정이 격렬해지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내집단에 대해 느끼는 강한 소속감과 수적(數的) 우세가 가져다주는 힘의 우위, 내집단의 안녕을 위한 맹목적인 목표 등이 개인이 느껴야 할 이성적 판단이나 책임감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군중심리의 특성은 위기상황 시 지도자에 대한 숭배와 그의 명령에 대한 맹목적 순종의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161) A.S.K Manstead and M.Hewston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Oxford, UK: Blackwell, 1996.

162) 귀스타프 르 봉, 앞의 책, 54~55면.

대방(大方)이 대희(大喜)하여, “남해(南海) 동관(同官) 하는 말씀 불변 불요(不煩不擾) 장히 종소. 그대로 시행(施行)하되 조그마한 강쇠놈에 저리 많은 식구(食口)들이 정처(定處)없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축이 들고 빠진 데는 틈 날 테니 머리에서 두 팔까지 전라(全羅), 경상(慶尙) 차지하고, 겨드랑서 볼기까지 황해(黃海), 평안(平安) 차지하고, 항문(肛門)에서 두발(頭髮)까지 강원(江原), 함경(咸鏡) 차지하고, 오장육부(五臟六腑) 내복(內腹)일랑 경기(京畿), 충청(忠淸) 차지하여, 팔만사천(八萬四千) 털구멍 한 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잘 바르라.” 팔도(八道) 장승 청령(聽令), 사냥 나온 벌떼같이 병(病) 하나씩 등에 지고, 함양(咸陽) 장승 앞을 서서 강쇠에게 달려들어 각기(各己) 자기네 말은 대로 병도배(病塗褓)를 한 연후(然後)에 아까같이 흠어진다.¹⁶³⁾

장승들의 우두머리격인 대방 장승이 함양 장승 혼령의 고탈된 하소연을 듣고 전국 장승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논의된 대로 병도배를 시행하게 하는 이 대목은 군중심리가 더욱 고착화되고 응집되어 폭력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데 있어 군중 안에서 지도층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대방 장승은 혼령이 된 장승의 고탈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려하기 보다는, 장승 집단의 대표로서 강쇠를 집단에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인정하고 통문(通文)을 보내 강쇠를 죽일 방법에 대해 논해달라고 청한다. 대방 장승의 통문에 조선의 각 지방에 있는 장승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든다. 또 강쇠를 처벌할 방법을 논할 때도 대방 장승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다른 장승들은 대방 장승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으로 판단하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의견에 맞춰가며 다른 방안들을 모색한다. 대방 장승이 여러 의견 가운데 남해 동관 장승의 말에 심히 기뻐하며 강쇠를 징치할 방법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하자 전국 팔도의 장승들은 그 명령에 따라 “사냥 나온 벌떼 같이” 강쇠에게 달려들어 병으로 도배를 하고 흠어진다.

163) <변강쇠가>, 559~561면.

만약 대방 장승이 함양 장승의 혼령의 이야기에 보다 객관적 사실 여부를 알아본 후 장승들을 소집했다거나, 징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가열되고 과장되는 장승 집단의 분노를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면, 강쇠에게 가해질 폭력의 강도는 그토록 잔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자기 판단을 상실한 군중 속의 개인은 군중의 전체적인 여론이나 군중 지도층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적극적이고 맹목적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집단 안에서 지도층의 입장과 의견은 그들의 충동성과 폭력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자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중의 지도층도 군중 안에서 자기 판단을 상실한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군중의 과장기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대다수는 이러한 외부적 요소의 자극에 나쁜 감정으로 대응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성향이 집단의 폭력성을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집단은 그 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협한 암시에 의해서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반론을 수용하고 토의를 인정할 줄 알지만 집단은 그렇지 않다. 집단은 충동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때에 따라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결여되어있다.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게, 그리고 더욱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¹⁶⁴⁾

집단적 폭력에서 문제가 되는 점들은 첫째, 집단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나 집단의 규율·규정에 대해 객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집단이 그자체로 법이 되어 오직 집단의 강령에 대한 맹목적 찬성 및 수용여부를 따져 묻는 것이 집단과 어긋난 개인에게 드리우는 잣대가 되는 경우; 둘째, 집단의 도덕·윤리 규범 등이 보편적 타당성을 가

164) 라인홀트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04, 10~20면 참고.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긴 개인에게 가해지는 통제나 처벌은 필요이상으로 더 가혹하게 행해지는 경우(힘의 불균형); 셋째, 집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이 정당화 되는 경우; 넷째, 집단이 개인에게 강하는 폭력이 다시 2차 · 3차의 폭력을 낳고 또 낳는, 연쇄성을 갖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집단적 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때로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한다.

폭력의 테두리 안에서 집단은 종종 물리적인 폭력의 주체가 되곤 한다. 폭력의 주체로써 집단은 그 구성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기도 하고, 서로의 폭력성을 부추기기도 한다.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안정감과 단체 행동을 통해 나만이 폭력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안심은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감을 희석시키며 구성원들로 하여금 집단이 가하는 폭력에 대해 열렬히 지지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지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때로 폭력에 대한 구성원들의 망설임을 극복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도록 이끈다. 집단적 폭력은 개인과 개인의 폭력보다도 파급력이 훨씬 크며, 사회적 차별이나 집단이기주의 등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집단적 폭력을 주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변강쇠가>에서는 옹녀와 강쇠에게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장면들에서는 폭력 주체로서 집단의 형성, 집단 이기주의와 결합된 군중심리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집단적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폭력의 집단성이 반복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그려진 다른 작품이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폭력론적 관점에서 <변강쇠가>는 특이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 감정이입의 배제와 2차 폭력

문자가 창제되기 이전, 말하고 듣고 노래하고자 하는 인간의 습성은 문학행위의 시초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발전한 구술문학(口述文學)은 문학의 시초가 되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문자 창제 이후 기술문학(記述文學)이 탄생해 그 범주를 넓혀가는 가운데에서도 구술문학은 문학의 여러 방면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중 판소리는 대표적인 구술문학에 속하며, 이후 탄생한 판소리 문학은 구술성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기술성이 지배하는 문화로 전환되던 과도기적 상황의 구술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⁶⁵⁾ 말로 진행되는 판소리는 구술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판소리에서 창자(唱者)가 구연한 것을 기록한 판소리 사설은 기존 판소리에 문자적 영향, 즉 기술성(記述性)이 추가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판소리 사설은 구술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학으로, 서사와 희곡의 특질을 모두 갖게 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변강쇠가>는 신재효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에 국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판소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중개화자 및 등장인물을 맡고 있는 광대, 즉 창자(唱者)를 통해 현장에서 관객에게 전해진다. 판소리 사설로 넘어와서는 기록문학이 갖는 지면(紙面)상의 제약 때문에,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서술자를 주축으로 한 서사적 서술이 전개된다. 판소리 사설의 서사(敍事)는 사건의 현장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서술자는 철저한 제3자로서 객관적이고 초연적인 태도로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서술자는 삼인칭 시점에 입각하여 이야기 전체를 총체적이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일관된 어조와 시각으로 독자에게 설명한다. 때문에 판소

165) Walter J. Ong,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6, 45~46면.

리 소설에서 독자는 서술자에게 의존하여 작품의 내용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던 것을 재현하여 삽입한 희곡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술자의 세밀한 묘사나 생동감 넘치는 상황 설명이 없다면 독자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판소리 사설에서 서술자가 갖는 영향력은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판소리 사설과는 달리, 심지어 신재효본의 다른 판소리 사설과도 비교했을 때, <변강쇠가>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독자는 작품의 현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조명되고 걸려진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게 된다. 서술자가 작품과 독자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자는 작품 내부의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주제까지 지배하고 이끌어간다. 독자는 철저히 서술자의 설명과 묘사에 따라 등장인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작품을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서 서술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폭력론적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을 논하자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대다수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폭력은 그 작품이 향유되던 시기의 교훈적 이념강화를 위해, 혹은 작품 끝에 가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행복한 결말을 맞도록 하는 서사적 기능을 주로 담당했다. 비록 초반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뒤에는 반드시 신원(伸冤)과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모르는 관객들은 이야기 마무리에 등장할 행복한 결말을 고대하며 등장인물들이 겪는 폭력적인 고난과 역경에 쉽게 감정이입을 하고, 등장인물이 난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며 함께 마음을 졸이고 울고 웃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관객이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이다. <심청전>에서 서술자는 작품 초반에 심청의 딱한 사정과 고운 성품을 다각도로 묘사하여 독자

들로 하여금 심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고,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자신에게 칼을 씌우고 욕박지르는 신임 사또에게 깨끗한 태도를 유지하며 정조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당차게 이야기 하는 장면을 통해 독자들이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지지하고, 신임 사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기대하도록 유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 등장인물들이 고초를 겪는 폭력적인 장면에서 무고한 희생양이 된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여 안타까워하고 연민을 갖는다. 그러나 <변강쇠가>에서는 이러한 서술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변강쇠가>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부정적 언어선택으로 독자로 하여금 인물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도록 일조한다.

이삼년(二三年)씩 걸러 가며 상부(喪夫)를 할지라도 소문(所聞)이 흉악(凶惡)할 터인데 한 해에 하나씩 전례(前例)로 처치(處置)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동서방(書房), 그남은 간부(間夫), 애부(愛夫),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젓 한 번 쥔 놈, 눈흘레한 놈, 손만저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상척자락 얼른 한 놈까지 대고 결단을 내는데, 한 달에 못을 넘겨, 일 년에 동 반 한 동 일곱 못, 윤삭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설그질 제, 어떻게 쓸었던지 삼십 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姑捨)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總角)도 없어¹⁶⁶⁾

이처럼 옹녀가 재가하여 얻은 남편을 줄줄이 잃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옹녀를 향한 안타까움 보다는 남편들을 “한 해에 하나씩 전례로 처치했다”라거나, “어떻게 쓸었던지 삼십 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하고”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마치 옹녀가 남자들을 하나씩 잡아먹거나 처치한 음탕하고 저속한 여자인 것처럼 부각시켜 묘사한다.

166) <변강쇠가>, 533면.

이 때에 변강쇠라 하는 놈이 천하(天下)의 잡(雜)놈으로 삼남(三南)에서 빌어먹다 양서(兩西)로 가느라고, 연놈이 오다가다 청석(靑石)골 좁은 길에 둘이 서로 만났거든, 간악(姦惡)한 계집년이 할곳 보고 지나가니, 의뭉한 강쇠놈이 다정히 말을 물어¹⁶⁷⁾

또한 변강쇠가에 대한 인물의 등장과 용녀와 변강쇠의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도 서술자는 위의 원문처럼 “천하의 잡놈”, “간악한 계집년”, “의뭉한 강쇠놈”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준은 물론, 감정이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부족하더라도 어떻게든 좋고 아름답게 등장인물들을 포장하려 애쓰는 다른 작품의 서술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노선으로 작품을 진행하는 것이다. <변강쇠가>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서술자가 갖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독자와 작품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에게 철저하게 감정이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독자와 작품 속 등장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더 넓혀 철저히 제3자화, 혹은 타자화 시키곤 한다.

이러한 감정이입의 배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극중 주인공인 용녀와 강쇠가 아닌,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집단에게 오히려 감정이입을 하고 동조하게 만든다. 감정이입이 배제된 독자는 보다 객관적인 사실파악 보다는, 음탕하고 문란한 용녀가 마을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며, 비록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하게 징치 당하다 죽는 강쇠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과하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당할 만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선택과 태도는 서술자로서 독자와 등장인물과의 심리적 거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변강쇠가>의 서술자는 시종일관 등장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견해로 작품 전반에 걸쳐 등장

167) <변강쇠가>, 535면.

인물들이 당하는 폭력에 당위성과 정당성이 부여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결국 서술자의 의도대로, 독자 역시 등장인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옹녀와 변강쇠는 작품에서 뿐만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도 독자와 서술자에 의해 점철된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가해자가 되는 셈인 것이다.

판소리 및 판소리 사설을 포함한 대다수의 문학 작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시각을 일관되게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인 폭력적 환경과 상황에 대해 묘사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의 고발 기능을 수행하며, 여러 상황과 형편가운데 행해질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폭력과 그 문제점을 독자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고 상기시켜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변강쇠가>는 서술자의 부정적 시선을 통해 독자들까지도 2차 가해자로 만들며 폭력을 부추기는, 종전의 문학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행보를 보여준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을 더 나쁘게 보이도록 작품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폭력론적 관점에서 <변강쇠가>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VI. 결론

문학은 현실적 시대상과 인간상을 잘 보여주며, 특히 소설은 사상이나 역사적 기록 보다 인간과 사회의 특징적인 면모를 잘 드러낸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극단적인 것으로 폭력을 들 수 있다. 폭력과 무관한 개인의 삶은 있을 수 없고, 폭력이 배제된 현실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은 인간의 본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문학과 현실이 맺는 밀접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때, 문학과 폭력 역시 중요한 접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소재로 삼거나 주제로 다루며 또 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성찰해왔다. 그렇다면 우리 문학사에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은 무엇일까? 그 속에서 폭력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고, 대체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러한 작품이 산출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논문은 동리 신재효(1812~1884)에 의해 정리된 판소리 사설 6마당 가운데서 창은 잃어버리고 사설만 남아있는 <변강쇠가>에 주목했다.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당대 현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변강쇠가>의 주인공들은 작품 전반에 걸쳐 ‘폭력’으로 정의되는 힘에 의해서 희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변강쇠가>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작동방식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폭력론적인 관점에서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의 의미를 논하고자 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II장에서는 본고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현실에서 발생하는 폭력현상의 다양성만큼이나 폭력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의미망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폭력을 정의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학 연구에 적합한 폭력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폭력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타인의 신체나 기물에 가하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해 및 훼손 행위를 넘어,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그 존엄성, 신체 및 정신적 자유, 정체성,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폭력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크게 폭력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개인 對 개인, 집단 對 개인, 집단 對 집단으로 폭력의 유형을 나누어 그 성격을 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Ⅲ장에서는 <변강쇠가>에 나타난 추방과 살해, 그리고 시체처리의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의 작동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논의한 폭력의 개념과 유형에 기초하여 본고의 대상이 되는 <변강쇠가>의 서사단락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폭력에 해당되는 장면을 도출하여 정리함으로써, Ⅲ장에서 본격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폭력을 그 주체와 대상, 원인, 수단, 그리고 사후에 폭력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는 모습까지를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 2절에서는 남달리 아름답고 반복적인 개가를 선택한 문제적 여성인 옹녀가 마을 남성 노동력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받고 추방되는 과정에 나타난 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옹녀의 추방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단 심리가 형성되는 과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개인을 부정적으로 타자화하여 행사되는 집단적 폭력의 작동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절에서는 마을 집단의 경계 밖으로 축출되어 사회적 생존 방식이 파괴된 상태에서 장승을 뿔감으로 사용하는 일탈을 저지른 강쇠에게 가해진 폭력을 살폈다. 그 폭력은 옹녀의 추방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다수의 폭력이라는 형태를 보이지만 폭력 주체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며, 살해라는 더욱 잔혹한 방식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강쇠의 징치 방법을 결정할 때 장승들이 경쟁하듯 발언하는 대목은 집단이 그들의 공동체 의식과 결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윤리적·도덕적 분별력과 죄책감이 마모되어 잔혹해지는 집단 심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폈다.

4절에서는 강쇠의 시체를 비롯한 여러 구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별력과 죄책감이 상실된 상태에서 행사된 집단적 폭력은 그 피해자를 괴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폭력의 결과로 시체가 된 강쇠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을 집단에 대한 원망이나 적대감을 엉뚱하게도 옹녀와 다른 유랑인에게로 치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신을 죽게 만든 장승집단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복수하는 모습을 통해, 폭력이 보통 약자에게 가해진다는 원리와 폭력의 대상이 된 약자는 다시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아래의 약자를 찾아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른바 가학(加虐)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강쇠의 시체가 처리되는 모습에서 추방과 살해에 이어 그 존재 자체를 말살해버림으로써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관철되고 있는 집단적 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장에서는 폭력론적 관점에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찾고자 했다. 먼저 본고는 <변강쇠가>가 폭력의 위협적인 특성과 분출구로서의 집단적 폭력이 전면에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했다. 특히 판소리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진술한 현실 인식이라고 했을 때, 그동안 조명되어 온 민중의 긍정적 면모뿐만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현실의 불편한 진실까지도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의 첫 번째 의미를 찾았다. 다음으로 <변강쇠가>의 중요한 폭력들이 대체적으로 ‘집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집단 심리’와 ‘폭력’의 상관관계 속에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폭력 주체로서 집단의 형성, 집단 이기주의와 결합된 군중심리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러한 심리가 집단적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일련의 과정이 <변강쇠가>에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폭력의 집단성이 반복적이고 정확하며 세밀하게 그려진 다른 작품으로서 <변강쇠가>의 의미를 논하고자 했다.

또한 <변강쇠가>가 서술의 차원에서 시종일관 폭력의 피해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감정이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이 당하는 폭력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은 물론, 옹녀와 강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와 잔혹성이 갈수록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되는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연민의 시선을 보이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논리가 <변강쇠가>에서는 거부되고 있으며, 문학이 현실의 폭력을 담아내는 것을 넘어 문학 자체가 폭력성을 띠고 2차, 3차 가해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변강쇠가>의 폭력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판소리 사설 <변강쇠가>의 폭력성에 주목하여 작품 속 폭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작품이 가지는 폭력론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폭력론이라는 관점을 통해 고전 작품 연구의 방법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다만 본고에서 분석을 시도한 작품들 외의 다른 판소리 사설들을 함께 검토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판소리 사설에 이처럼 다양한 폭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작업은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자료

『신오위장본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강한영(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전)』, 민중서관, 1971.

강한영(교주), 『申在孝 판소리 사설集(全)』, 보성문화사, 1978.

『咸從郡中里面仲仙里致死殺獄正犯罪人金用信屍身文案;初檢, 覆檢』 <奎2138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2. 단행본

김모세, 『르네 지라르-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살림, 2008.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서종문 · 정병헌 편, 『신재효 연구』, 태학사, 1997.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이병기, 『國文學概論』, 일지사, 1961.

이병기, 정병욱·최승범 편, 『가람일기』, 신구문화사, 1975.

정노식, 정병헌 교주, 『교주 조선창극사』, 태학사, 2015.

정향균, 『아비농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귀스타프 르 봉, 『군중심리』, 간디서원, 2005.

라인홀트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문예출판사, 2004.

르네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문학과지성사,
2004.

르네 지라르, 김진신 역,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문학과지성사, 2007.

르네 지라르, 김진신·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12.

르네 제라르, 김진식 옮김, 『희생양』, 민음사, 2012.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생각의 지도』, 김영사, 2004.

린 헌트, 전진성 역,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산논, 2007.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 2011.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토마스 홉스, 최공웅·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동서문화사, 2016.

플라톤, 천병희 역, 『법률』, 숲, 2016.

헤르트 홉스테드 외.,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3. 논문

강진옥, 「〈변강쇠가〉연구 2 - 여성인물의 ‘쫓겨남’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어문학회, 1993.

구본기, 「판소리계 소설의 정명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김동건, 「토끼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동욱, 「판소리 발생고 (2)」, 『논문집』 3, 서울대학교, 1956.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김선현, 「〈변강쇠가〉에 나타난 공간과 유랑민의 삶」, 『판소리연구』 34, 판소리학회, 2012.

김용기, 「洪世泰 <金英哲傳>에 나타난 세 가지 暴力과 문학사적 의미」, 『어문론집』 66, 중앙어문학회, 2016.

김종철, 「19세기 판소리사와 변강쇠가」, 『고전문학연구』 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 _____, 「<변강쇠가>의 미적특질 - 괴기미 추구와 관련하여」, 『판소리연구』 4집, 1993.
- _____, 「변강쇠가와 기괴미」,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창을 잃은 판소리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 김지수, 「폭력과 분노에 대한 동양 법철학적 성찰」, 『법학논총』 36권,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6.
- 김창현, 「<변강쇠가>의 해결될 수 없는 갈등과 그로테스크」, 『한국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공동체』, 2004.
- 김 호, 「규장각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 _____, 「100년 전 살인사건, ‘검안’을 통해 본 사회사」, 『역사비평』 55, 역사비평사, 2001.
- _____, 「檢案, ‘예외적 정상’의 기록들」,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박경신, 「무속제의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 영광지방의 민장내용분석-」, 『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3.
- 박소현, 「검안을 통해 본 여성과 사회」, 『고문서연구』 제 50호, 한국고문서학회, 2017.
- 박수현, 「‘우리’를 상상하는 몇 가지 방식」,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 _____, 「1970년대 사회적·문화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 『인문과학논총』 33권,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박은경, 「불협화음의 엑스터시-문학과 폭력에 관한 소고」, 『뵈히너와 현대문학』 34권, 한국뵈히너학회, 2010.
-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 박정세, 「한국 희생전설의 구조와 희생관」,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박진태, 「<변강쇠가>의 희극적 구조」, 『논문집』 1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1.

- _____, 「금기설화의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의 구조」,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9.
- 박희병, 「‘병신’에의 視線」, 『고전문학연구』 24권,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서유석, 「<변강쇠가>에 나타난 기괴적 이미지와 그 사회적 함의」, 『판소리연구』 16집, 2003.
- 서종문, 「<변강쇠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 _____, 「변강쇠와 유랑민의 삶」, 『판소리 사설 연구』, 형설출판사, 1986.
- 신동원, 「변강쇠가로 읽는 성·병·주검의 문화사」, 『역사비평』 67, 역사문제연구소, 2004.
- 신진옥, 「근대와 폭력—다원적 복합성과 역사정 불확정성의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제38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4.
- 신호림, 「<지네장터> 설화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극복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 36집, 한국구비문학회, 2013.
- _____, 「<변강쇠가>에 나타난 욕망과 규범 사이의 긴장과 그 처리방식」, 『판소리연구』 제45집, 판소리학회, 2018.
- 심재우, 「『審理錄』연구-정조대 사형범죄 처벌과 사회통제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심리록』과 조선시대 판례 읽기」, 『장서각』 3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심치열, 「<운지경전>에 나타난 폭력의 대응방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50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 실천민속학연구, 2007.
- 오세정,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 『어문연구』 30-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오양순, 「르네 지라르의 안티 유토피아적 세계와 유토피아적 결말에 대하여」, 연세대학교석사논문, 2000.
- 유철상,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악과 폭력의 문학적 형상화」, 『비교문학』 제 45집, 한국비교문학회, 2008.

- 윤분희, 「<변강쇠전>에 나타난 여성인식」, 『판소리연구』 9, 판소리학회, 1998.
- 윤지영,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재현과 근대성」, 『인간과 문화 연구』 제 17집,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10.
- 이강엽, 「신재효 <변강쇠가>의 성(性)과 죽음의 문제」, 『열상고전연구』 6, 열상고전연구회, 1993.
- 이명선, 「조선연문학의 최고봉 <변강쇠전>」, 『신천지』 제 4권 제 6호, 서울신문사, 1949.
- 이영배, 「민속극에서 폭력의 성격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 20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1년.
-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 이정미,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연구』 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 이정원, 「<변강쇠가>의 성 담론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임수현, 「<변강쇠가>의 서사구조 고찰」,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 전신재, 「판소리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_____, 「「변강쇠가」의 비극성」, 『先淸語文』 1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정병설, 「조선시대 차별과 적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구운몽』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7.
- 정병헌, 「<변강쇠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한국언어문학』 24, 1986.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정인혁, 「변강쇠가의 구조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지영, 「변강쇠전 -조선후기 성 통제와 하층여성의 삶」, 『역사비평』 65, 역사비평사, 2003.
- 정출현, 「판소리에 나타난 하층여성의 삶과 그 문학적 형상」,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정한국, 「‘楚玉’과 ‘옹녀’ -19세기 비극적 자아의 초상」, 『한국문학연구』 3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
- 조금호, 「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사회과학연구』 12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최경환, 「<변강쇠가>연구 -선택과 배치의 담화전략-」, 『語文學論叢』 개교 60주년기념 특별호,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 최동현, 「문화적 갈등으로 본 『변강쇠가』」, 『국어문학』 제 61집, 국어문학회, 2016.
-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 제52권 3호,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 최양석, 「플라톤의 폭력에 대한 이해」, 『철학논총』 제36집, 새한철학회, 2004.
- 한규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10, 한국심리학회, 1991.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홍해월, 이명현, 「<변강쇠가>와 웹툰 <마녀>에 나타난 공동체(共同體)와 타자(他者)」, 『우리문학연구』, 우리문학회, 2017.
- 황인환, 「<변강쇠가>의 줄거리체계와 작중인물들의 성격과 作中機能」,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A.S.K Manstead and M.Hewstone,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Psychology*, Oxford, UK: Blackwell, 1996.
- Charels Hampton, “Beyond reciprocal violence: René Girard and Siegrfried Sassoon”, *Practical Theology*, 2008.
- Donal Black, “Social Control as a Dependent Variable”,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Control vol.1*, Academic Press, 1984.
- Geen, R. G., *Human motivation: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Pacific Grove, CA:Brooks/Cole, 1995.

- J. Punt,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and the Roman Empire: Ambivalence, Othering, Agency", in G.R. Peter & Jan Willhelm van Henten ed., *Coping with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Leiden/ Boston: Brill, 2012.
- Lefebure, Leo D. "Victims, violence and the sacred: The thought of René Girard", *The Christian Century*, 113 no.36, 1996,
- Roberta Senechal de la Roche, "Why is collective violence collective?", *Sociological Theory*, Vol. 19, No. 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1.
- S. Reich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 Triandis, H. 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1995.
- W.McDougall, *Group Mind: A Sketch of the principles of Collective Psychology, with Some Attempt to Apply Them to the Interpretation of National Life and Character*. New York: G.P. Putnam's Sons, 1920.

中文摘要

有关《卞钢铁歌》中出现的暴力之研究

吴成俊

首尔大学 研究生院

国语国文系 国文学专业

这篇论文的首要目标是揭露韩国板索里说词《卞钢铁歌》中出现的暴力状况和运作方式。而且，通过对能够产生这种暴力叙事的社会背景进行考察，从暴力论的角度出发，试图了解板索里说词《卞钢铁歌》所具有的意义。

首先，为了制定出适合文学研究的暴力概念，从贯通东西方的历史观点出发，思考暴力是如何被定义的。由此可以看出，暴力除了对他人身体所施加的物理伤害及损害行为之外，还包括在一个人维持人性化生活的过程中，对其尊严、身体及精神自由、认同感、理应享受的普遍且妥当的权利等进行侵害的语言、非语言、精神、关系上的暴力。并根据暴力的主体与对象，将暴力分为三种类型，分别是个人对个人、集体对个人，以及集体对集体的暴力。

在这样的研究结果的基础上，本文把《卞钢铁歌》中出现的暴力分为三个部分，即“驱逐雍女”、“杀害卞钢铁”和“处理尸体”，而从主体、对象、原因、暴力手段、到事后暴力合理化、正当化的面貌进行了总体考察。

在“驱逐雍女”部分：雍女长得格外美丽，且反复选择改嫁，在村里男性劳动力枯竭的严重状况下，给村里邻居留下了否定印象而被驱逐，本文关注了雍女被驱逐的这一过程。当出现问题时，可以确认，在形成集体心理的过程中，以及为了解决问题，采取了对脱离集体秩序的个人，以“否定的他人化”的方式而行使集体暴力的方式。

在“杀害卞钢铁”部分：卞钢铁在被赶到了村子外的状态下，以其烧掉长丞为由，而被施加暴力。本文观察到这种暴力与驱逐雍女一样，表现为多数人对个人的暴力，但是与此相比暴力主体的范围扩大了，而且集体选择了更加残酷的“杀害”的方式，从这一点上可以确认其区别。尤其，在决定对卞钢铁进行惩罚的方法时，长丞们竞相发言的部分显示出了集体在确认他们的共同体意识和团结的同时，在伦理上、道德上的分辨力和负罪感被磨灭而变得残酷的集体心理特性。

在“处理尸体”部分：对在处理卞钢铁的尸体等多具尸体的过程中产生的暴力进行了观察。在丧失分辨力和负罪感的状态下行使的集体暴力，有时会令受害者变成怪物，但因暴力而成为尸体的卞钢铁却莫名其妙地把自己的怨恨和敌对感转移到雍女和其他流浪者身上。不是对杀死自己的长丞们复仇，而是对相同处境的人复仇，从此可以看出，暴力一般都会施加在弱者身上的原理，以及成为暴力对象的弱者会找到与自己相似或比自己还要弱的弱者行使暴力，即所谓的“施虐”原理。不仅如此，在对始终不掉下来的卞钢铁的尸体进行处理的过程中，继被驱逐和杀害后，继而将其存在本身抹杀掉，从此可以确认从作品的开头到最后都在贯彻集体暴力。

另外，本文从暴力论的角度出发，试图寻找《卞钢铁歌》的意义。尤其值得关注的是，《卞钢铁歌》的暴力威胁性特点和作为喷出口的集体暴力全面浮出水面。如果说板索里这一类型的风格所具有的特征是真实地认识现实的话，那么不

仅表现以往被强调的民众积极的一面，同时也体现出了暴力这一令人不适的现实真相，从这一点来看，《卞钢铁歌》的第一层意义就不言而喻了。其次，《卞钢铁歌》中重要的暴力大体上表现出“集体性”，从“集体心理”和“暴力”的相互关系中观察到了《卞钢铁歌》的意义。据了解，作为暴力主体的集体的形成，与集团利己主义相结合的群众心理的发展过程，以及这种心理以集体暴力这一极端形态表现出来的一系列过程，都非常具体地描写在《卞钢铁歌》中。与其他以暴力登场的作品不同，暴力的集体性被反复、准确、细致地刻画出来，这也是《卞钢铁歌》的另一个意义所在。

同时，本文还注意到，《卞钢铁歌》从叙述的角度始终对暴力受害者进行否定的描写，从而阻止人们对他们的感情投入。故事的展开似乎在强调他们所遭受的暴力是理所当然的，而且对雍女和卞钢铁施加的暴力的程度和其残酷性也有越来越严重的倾向。古典小说的一般逻辑是对成为暴力对象的弱者表现出怜悯目光，但这在《卞钢铁歌》里是被拒绝的。《卞钢铁歌》超越了文学描写现实中的暴力，而文学本身就具有了暴力性，并进行了二次、三次加害，从这一点上可以看出《卞钢铁歌》在暴力论上的意义。

总而言之，“暴力”是有关人类本性和人际关系的重要主题，《卞钢铁歌》中集体暴力现象最为严重，这一点值得关注。通过观察作品从头到尾贯彻的暴力存在和其性质，可以全面暴露出集体暴力，特别是对下层共同体的暴力问题，从这一点看，《卞钢铁歌》具有深远的意义。

*** 关键词：**《卞钢铁歌》、暴力、集体暴力、群众心理、暴力的集体性、
对下层暴力、二次暴力

*** 学 号：**2012-22861